청송심씨 심벌마크

青松沈氏宗報

발행인 : 회 장 심대평
편집인 : 편 집 장 심창래
서울시 중구 을지로30길 47, 찬경회관5층
전 화 : (02)2267-7857
(02)2267-9339
FAX : (02)2269-7755
인 쇄 : J.M미디어
(02)2267-96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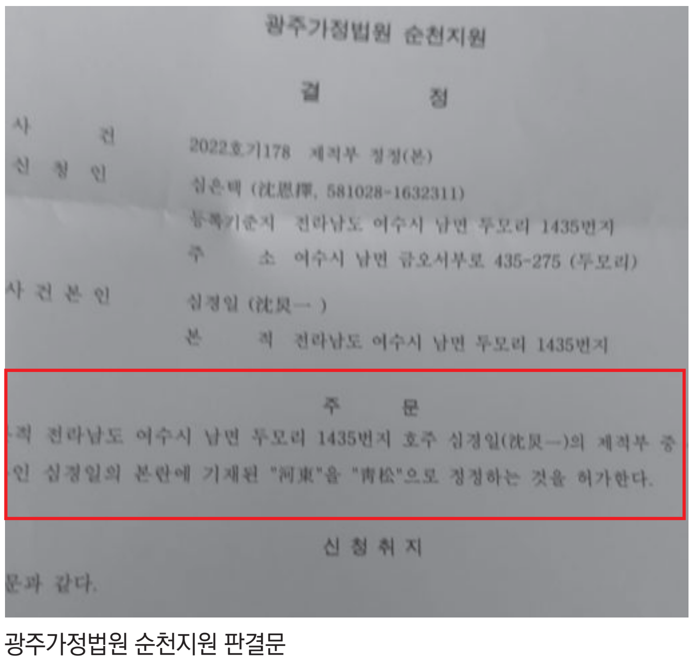
격월간 제159호(1955년 7월 5일 창간) 홈페이지 | www.csshim.or.kr 2023년 1월 31일(화)

자랑스런 선조 13상신의 후예가 되겠습니다.

심문을 빛낸 영파워 5인의 신년특집 인터뷰

지난해 행정고시 · 외무고시 · 변호사 · 관세사 합격 및 서울대 신임교수로 임용된 5명의 젊은 인재들을 초청하여 〈2023년 계묘년 신년특집인터뷰〉를 하였다. 서울시청 앞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진행된 인터뷰에는 왼쪽부터 심수연 교수, 심주영 사무관, 심혜원 관세사 합격자, 심여진 외무고시 합격자, 심태섭 변호사 합격자가 참석했다.(관련기사 11면)

180년 동안 잃어버린 본관 '青松'을 되찾다!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결 정

사 건 2022호기178 제적부 정정(본)
신 청 인 심은택 (沈恩擇, 581028-1632311)
등록기준지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두모리 1435번지
주 소 여수시 남면 금오서부로 435-275 (두모리)
사 건 본 인 심경일 (沈炅一)
본 적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두모리 1435번지

주 문

…적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두모리 1435번지 호주 심경일(沈炅一)의 제적부 중 …인 심경일의 본란에 기재된 "河東"을 "青松"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

신 청 취 지

…문과 같다.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결문

지난해 12월 8일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은 '심경일의 본란에 기재된 "河東"을 "青松"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판결문(상단 사진)을 받았다. 무려 180년만에 본관 '青松'을 되찾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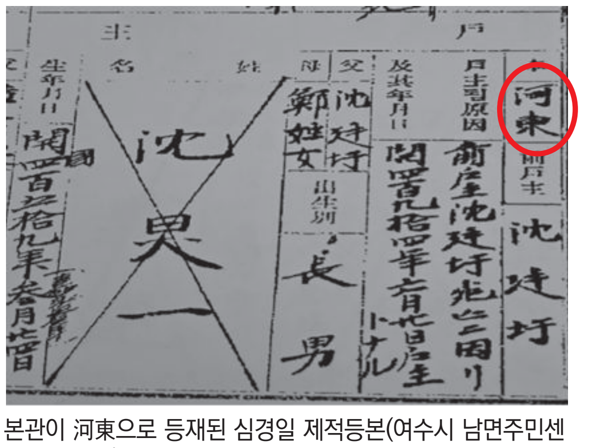
이 판결문에 의거 1843년 계묘생 심경일(沈炅一)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직계존비속 60여명 모두 본관을 청송(青松)으로 말끔하게 정정하게 되었다. 그동안 관할관청에 비치된 당사자 심경일(沈炅一)의 제적등본 상 하동 심씨(河東 沈氏, 우측 사진)로 등재됨에 따라 그 직계존비속 후손들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하동 심씨로 등록되어 있었다. 안타깝게도 관공서 기록에서는 18세조 이전의 제적등본 보존기간이 지나서 19세조 심경일의 본관 정정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

다행히도 청송심씨대동보와 5세조 판사공파보에는 심경일이 청송심씨 시조 문림랑공(휘 沈洪孚) 19세손이며, 임진왜란때 전라남도 보성에서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으로 입향한 청송 심씨 10세조 통정대부공 심응해(沈應海)의 직계 후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관계 입증에는 판사공종회 심상우 회장 등 직계 파종회가 적극적으로 도왔다.

대종회는 지난해 7월 1일 여수시 남면주민센터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심경일(沈炅一)은 분가할 당시 호적을 편제함에 있어 착오를 일으켜 본을 「청송(青松)」으로 하여야 할 것을 어머니 하동(河東) 정씨(심정후의 처)의 본관 「하동(河東)」으로 등재하여 오늘날에까지 이르게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그래서 같은해 7월 18일 여수시청 민원실을 방문하고 사실관계를 재확인 및 정정절차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과 논의하였다. 여수시청의 안내에 따라 청송심씨대동보에 등재된 기록을 바탕으로 법원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같은해 10월 5일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을 방문접수하였으며, 판결문을 받기까지는 약 5개월 정도 소요되었다.



본관이 河東으로 등재된 심경일 제적등본(여수시 남면주민센터 보존공부)

본관 정정을 수행하면서 얻은 교훈은 "행정관서에 보관된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 등 공부는 보존기간이 유한(有限)하지만 대종회나 파종회 족보에 등재된 기록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든 일가분들이 족보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글=심상억 대외협력실장)

대종회장 신년사

심대평 대종회 회장

국내·외 30만 일가여러분!

새해는 코로나19. 판데믹 이후 하향곡선에 접어든 경기변동, 고금리 추세 등 국내외 제반사정은 녹록지 않지만, 沈門(심문)은 우애와 배려로 재도약하는 번영의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청송심씨는 자랑스런 선조님의 얼과 기개(氣槪)가 역경속에서 더욱 빛난 정신유산을 물려 받은 후손이므로 슬기롭게 대처하는 지혜를 발휘하여 난관을 잘 헤쳐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지난해는 숭조사업을 착실히 수행하면서 심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일가간의 소통과 공감 및 인재 육성 등 대종회 발전을 진전시킨 한 해였습니다.

우선, 조선 수군의 전술모델이 된 1380년 진포대첩 심덕부 도원수의 전과(戰果)는 자랑스런 역사로 재정립한 '진포대첩기념비'를 다시 건립케 하였고, 영의정 심순택 평택 묘소 정비와 선조 묘하(墓下)에 연못 조성 등 숭조사업은 일가분들의 지극한 효심과 합심으로 이룬 성과입니다.

둘째, 지난해 국내외 언론의 뜨거운 관심 속에 일본 15대 심수관이 424년만에 김포 선영을 눈물로 참배한 것은 뿌리 깊은 심문의 숭조정신을 일깨워 주었으며 명문가문으로서의 명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셋째, 선조 13상신 사료를 소재로한 달력을 제작하고 품격높은 종보편집 운영 및 밴드와 카톡방 등 다양한 SNS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넷째, 청송심씨 따님으로서 거액의 장학기금을 기부하고, 2세조 함문지후공 향사 봉행에는 청장년층이 솔선수범하는 등 새로운 바람이 일기 시작한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변화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일가분들이 각분야 중심세력으로서 역량을 발휘하며 심문의 위상을 드높이고, 국가와 문중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하며 치하드립니다.

사랑하는 일가여러분!

올한해도 심문의 역사가 깨어나고 미래를 밝혀야 할 동력이 필요합니다.

고려말 · 조선초에 조성이 추정된 안동 '沈판서묘'에 대해서 1970년대 중반에 규명이 보류된 채로 오늘에 이르렀으니 마무리가 필요하고, 4세조 심덕부 신도궁궐조성도감 판사 역임 당시 역사찾기도 공론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2회 한마음대회도 예정된 해입니다. 국내외 심문의 총의를 모으고 미래를 개척해 나갈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뜻을 모아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한해도 국내·외 30만 일가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고, 가내에 두루두루 축복과 행운이 깃들길 소망합니다.

2023. 1. 31.

청송심씨대종회 회장 심 대 평

계묘년 신년휘호

〈유비무환(有備無患)〉. 서경(書經) 열명편(說命篇)에서 유래하는 말로 대비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말이다. 중국 은나라의 어진 재상 부열(傅說)이 고종에게 전한 충언을 들려준다.

處善人 動有厥時 矜其能 喪厥功 惟事事乃其有備無患無患.

'생각이 옳으면 이를 행동으로 옮기되 그 옮기는 것을 시기에 맞게 하십시오. 그 능(能)한 것을 자랑하게 되면 그 공(功)을 잃게 됩니다. 오직 모든 일은 다 갖춘 것이 있는 법이니 갖춘 것이 있어야만 근심이 없게 될 것입니다.'

심재덕
대종회 부회장 (안동)

(사) 박약회 안동지회장
(재) 성균관 이사
(사) 대구경북서예가협회 부이사장
(사) 한중일 동양서예협회 이사
(사) 강원서예대전 대상 초대작가
(사) 대덕육영장학회장, 안동선비문화박물관 관장

(휘호: 심재덕 회장)

대종회 사무실 이전, 역사박물관 · 서울학사 건립 보고

대종회는 지난해 12월 7일 대종회 고문 · 회장단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대종회 50년사 발간, 2023년도 달력제작 · 배부, 함열 · 연천 묘소 앞 연못조성, 제4기 청심장학생 14명 장학증서 수여 및 4세조 도원수 심덕부 장군의 진포해전 전과(戰果)를 바로잡은 군산 '진포대첩기념비'를 다시 건립케한 2022년도 추진실적을 보고하였다.

또한 발전위원회에서 집중논의한 대종회 사무실 이전, 역사박물관 · 서울학사 건립을 비롯하여 제2회 한마음대회 개최, 종재실사 및 경계측량 등 2023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브리핑하였다.

대종회 고문 · 회장단회의...왼쪽부터 심상억 문화이사, 심규화 울산내금위공종회장, 심대섭 지성주사공종회장, 심상우 판사공종회장, 심능광 부회장(청송), 심석산 정이공종회장, 심무섭 안효공종회장, 심재구 인수부윤공종회장, 심종혁 감사, 심충진 감사, 심정보 고문, 심상은 고문, 심상철 고문, 심우영 고문, 심대평 대종회장, 심현근 대전 · 세종 · 충남종회장, 심재규 부회장(광주), 심충택 공숙공종회장 (사회=심언태 총무이사, 사진=심규정 재무이사)

토 끼 야

(그림: 심상훈)

2023년은 계묘년(癸卯年)으로 토끼해. 다시 돌아보면 코로나사태로 힘들고 어려운 3년간의 긴터널에서 벗어나 계묘(癸卯) 2023년 새해에는 국운도 넘치고, 모든 심문(沈門)들이 풍요롭고 넉넉하고 만사형통(萬事亨通)하는 다복(多福)한 새해가 되기를 기원하는 '토끼야' 작품을 게재합니다.

효산 (沈相勳(심상훈) 대구 선산종회 이사
現. 대한민국 미술대전, 대구, 신라, 경북도전, 한국화대전.
창조미술대전 초대작가
주소: 42157) 대구시 수성구 수성로 135, 103-602(상동,정화팔레스)
전화: HP) 010-3538-6004 이메일 : hyosan104@hanmail.net

단체대표 신년사

한글세계화로 세계1등 국가를 만듭시다...일가분들이 앞장서 주시길

한글세계화본부 **심의두** 총재

올해 계묘년은 우리 심문의 번영과 함께 한글세계화를 위한 도약의 해입니다.

최근들어 한류가 세계인들에게 각광받으면서 한글에 대한 관심도 함께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꿈이 없다면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아가 그 꿈이 나를 넘어 나라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거라면 그 삶은 더욱 빛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백년 앞을 내다보는 사람은 학교를 세우고, 천년 앞을 내다보는 사람은 한글세계화 운동(한사모)에 적극 동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한사모는 한글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충절의 지도자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국내에 외국인을 위한 한글학교를 세우고 또 해외에도 한글학교를 세워 대한민국을 세계 1등국가로 만드는 애국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969년 한글세계화 운동을 뉴욕에서 시작한 이래 54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이 운동이 꽃을 피울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되어 한글을 세계화하여 1등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글로 한국을 꽃피웁시다 !

우리 일가분들이 이런 좋은 사업에 앞장서 주신다면 심문의 사위인 세종대왕과 소헌왕후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새해는 우리 심문이 한글세계화의 주역이 되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대종회 활력화가 심문의 성장동력으로 발전하길 기대

심우영 주목회 고문(전 총무처장관 · 경북도지사)

중앙부처 고위공직자 및 언론사 간부 등을 지낸 일가분들이 참여한 '주목회'는 어느새 청송심씨 일가모임 중 최장년층 모임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국가의 중추세력으로서 청송심문 발전에 기여한 바도 적지 않지만, 이제는 뒷전에서 후진들의 그 역할에 자문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심대평 대종회장은 다양한 정부 경험과 탁월한 역량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국내외 30만 심문(沈門) 활력화에 큰 공적을 쌓고 있어 너무나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대종회가 4세조 심덕부 할아버지의 1380년 진포대첩 공적을 바로잡은 '진포대첩기념비'를 군산시로 하여금 재건립케하고, 1394년 신도궁궐조성도감 판사 재임시 공적을 재정립하려는 노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뿐만아니라 청성백의 실제(實弟)인 악은공 심원부 할아버지의 묘소로 추정되는 안동 '沈판서묘' 규명 등 숭조사업도 높이 평가합니다.

최근 재단법인 청심장학회 인재육성사업의 제도화, 국내외 30만 심문(沈門)간의 소통과 공감을 통한 우애증진, 젊은층이 문중에 참여할 수 있는 문호확대 등 새로운 변화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희망찬 2023년에는 대종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일가분들이 참여하고 성원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이러한 심문의 에너지가 성장동력으로 발전하여 재도약의 디딤돌이 되길 기원합니다.

자랑스런 선조님 정신과 유훈...어려운 현실을 헤쳐가는 지혜로 삼길

심재규 청광회장(청송심씨 광주기업인 · 공직자모임)

경향(京鄕) 각지에 계신 30만 청송심문 여러분!

2019년 문중 초유의 청송심씨 한마음대회 개최를 통해 성숙한 일가(一家) 공동체를 기반으로한 심문(沈門)의 저력은 대단합니다.

우선, 지난해는 자랑스런 선조님의 발자취를 수록한 '청송심씨대종회 50년사(1971~2021)'를 발간하여 후세에 길이 보전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군산시가 군산항 개항 100주년을 맞아 1999년 금강시민공원에 건립한 진포대첩기념탑의 시설물인 '진포대첩의 유래'에는 1380년 도원수 심덕부 선조님께서 왜구 500척을 괴멸시킨 역사적 사실이 마치 부원수 최무선의 치적으로 둔갑한 문맥을 바로잡아 '진포대첩기념비'를 다시 건립케한 숭조사업은 길이 빛날 것입니다.

셋째, 2세조 합문지후공, 4세조 청성백 묘소 정비사업 등 많은 공적을 남겼고, 인재양성을 위한 청심장학회가 활성화 되었으며, 특히 선조 13정승의 사록을 소재로한 2023년도 달력을 제작 보유케 함으로써 삼한갑족의 후손다운 자긍심을 갖고 금년 한해를 맞이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는 심문의 위상을 높여주신 심대평 대종회장님을 비롯한 일가 여러분들의 합일치된 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금(昨今)의 우리 현실은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어려움 속에서 계묘년을 맞이했습니다. 소위 감기, 독감, 코로나 등 트리플데믹의 복합적 유행과 경기침체, 인플레이션,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극심한 정쟁(政爭)과 갈등,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위협 등, 미증유(未曾有)의 극복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훌륭하신 조상님들의 슬기로운 지혜와 애국애족 정신으로 합심하여 슬기롭게 대처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800여년 심문(沈門)의 역사 속에 빛난 조상님들의 업적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조상을 섬기며 부모에 효도하고 가족 간에 화목하며 심문의 친목과 화합은 물론 후세들의 인재양성에도 힘써 명문대가(名門大家)로서 전통을 이어가도록 진력합시다.

계묘년 토끼는 만물의 성장과 번창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2023년 우리 청송 심문들께서도 대운(大運)과 함께 만사형통 하시고 번영, 번창 하시길 바라며 계묘년 새해에 소망하신 모든 일들이 성취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심훈은 근대한국문단의 최고봉 청송심문의 자랑...많은 일가분들의 방문 기대

심천보 심훈선생 기념사업회 이사장

계묘년 새해는 심훈 할아버지께서 중국 항주의 지강(之江)대학에서 수학을 마치고 1923년 귀국하신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근대 한국문단의 최고봉이요, 청송심씨 가문의 자랑인 소설 '상록수'와 시(詩) '그날이 오면'의 작가 직계 종손으로서 감회가 남다릅니다.

근래 백년간 발간된 문학지 중에서 애국애족정신을 높이 선양한 최고의 소설로 평가받는 작품이 바로 심훈의 '상록수'이고, 그날이 오기를 외치던 민족의 한을 풀어준 한민족의 시(詩)로 자리잡아 민족의 가슴을 울려준 시(詩)가 심훈의 '그날이 오면'입니다.

2014년 충청남도지정기념물제107호 필경사 건립을 비롯하여 자신의 안위보다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앞장서신 고귀한 애족정신을 살피며 심훈 정신을 추모할 수 있는 〈심훈기념관〉이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상록수길 105에 위치하고 있다. 심훈 할아버지께서 집필하시던 소장품 등 직계 선조님 유품 2500점이 진열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년 10만명의 관람객이 심훈기념관을 방문하였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수칙이 완화된 원년인 만큼 심훈 할아버지의 종손이자 심훈 기념관 이사장으로서 국민적 관심 제고에 몰두하고 있다. 국내외 30만 청송심문이 가문의 영광과 자부심을 마음에 새기고 애국애족 정신을 배워가는 훌륭한 기회에 앞장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년 당진시와 심훈기념사업회는 심훈청소년 백일장, 심훈포럼, 심훈문학상, 심훈상록축제, 심훈추모제 등 심훈의 문학사상과 애국정신을 선양하는 행사 30여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심훈기념관에서 뵙게 되길 소망합니다.

창립 20주년의 청심회...청송심문 발전의 밑거름되길 소망

심충식 전 청심회장

지난해까지 청심회(靑沈會)회장을 맡았던 심충식입니다.

서울 · 인천 · 경기지역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송심씨 모임이 바로 청심회(靑沈會)입니다. 정 · 관계, 기업인, 학계, 언론인 및 문화예술인 등을 총망라한 일가분들이 오직 혈연을 중시하며 정례적인 모임을 갖고 상호친목을 도모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어언 창립 20주년을 맞이 하였습니다. 심창섭 초대 청심회장께서 2002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현직 부장판사로서 청심회의 골격을 갖추었고, 2대 회장 심상조 대유토건(주) 회장, 3대 회장 심재웅 대신타워(주) 회장, 4대회장 심재안 제일영재학원 이사장, 5대 회장 심상돈 스타키보청기그룹 회장께서 역임해 오시면서 청심회의 위상과 운영에 큰 발전을 가져와 명실공히 청송 심문(靑松沈門)의 수도권 구심체로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저는 2017년 6대 회장에 취임하면서 선배 회장님들이 닦아놓은 청심회의 역할에 걸맞게 청송심문의 뿌리정신을 숭상하고 발전시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저의 임기동안 청심회 회원들께서 자발적으로 대종회 발전위원회, 2019년 한마음대회, 재단법인 청심장학회, 청송심씨종보, 재산관리위원회, 달력디자인위원회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성공적 운영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이 대종회가 선도하지 않았다면 청심회가 활력화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쉽다면 임기 마지막해 2020년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되어 자동으로 임기가 2년이 추가되었지만, 훌륭하신 심재섭 우리(주) 회장께 7대 회장을 인계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계묘년 새해에도 청심회는 전진과 도약을 거듭하여 청송심씨 문중에 크게 기여하게 되길 소망하면서 국내외 30만 심문 모두가 행복하고 활기찬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심한철 경무관 인터뷰

시민 인권보호 및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터

심한철 경무관

〈걸어온 길〉
- 1972년생
- 경찰대학 졸업 (12기)
- 울산경찰청 정보화장비과장
- 제71대 합천경찰서 서장
- 제59대 남대문경찰서 서장
- 경무관 승진 (2023.1.10.)

지난 1월 10일 경찰청 인사에서 경무관 승진을 축하 드립니다. 소감 한마디 부탁 드립니다.

1996년 경찰대학 12기로 졸업하고 26년만에 경무관으로 승진하였는데 감개무량하고 우리말에 '뿌리없는 나무는 없다'고 하는데 많은 일가분들의 응원 덕분으로 승진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찰 본연의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더욱더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찰공무원이 된 동기는 무엇이며 직장생활에 대한 소회를 한 말씀해 주세요.

어렸을 때부터 경찰관이었던 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았고 경찰관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경찰대학을 목표로 학업생활에 열중해서 경찰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경찰생활을 하면서 수사, 경비 등 다양한 보직을 경험하면서 힘든 적도 많았으나 그때마다 초심을 잃지 않을려고 많은 다짐을 했고 경찰이라는 직업이 나보다는 국민을 많이 생각해야 되는 직업으로 이 부분에 집중해서 직장생활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덕분인지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한 힘든 마음보다 일을 할 때마다 보람을 느끼는 게 훨씬 많았습니다.

세상 모든 게 마음 먹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1996년 경찰대학 졸업후 경찰청 경무국, 울산지방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을 거쳐 2016년 총경으로 승진하시고 고향 합천에서 첫 경찰서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후 수도 서울의 핵심인 남대문 경찰서장을 지내시고 경찰청으로 복귀하셨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과 보람있던 일은 무엇인가요.

심한철 합천경찰서장(앞줄 가운데 장복차림) 시절

2016년 총경으로 승진하고 나서 첫 경찰서장으로 발령난 곳이 제가 태어난 경남 합천경찰서장인데 2017년 6월28일 부임하고 나서 거의 일주일만인 7월 4일 경 엽총으로 무장한 41세 남성이 전처와의 만남을 요구하며 초등학생 아들을 인질로 붙잡고 거의 24시간만에 무사하게 인질인 아들을 구출하고 범인도 자수시킨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날 제가 합천관내 양성평등 행사가 있어 특강 요청을 받고 오전에 한참 특강을 하고 있었는데 엽총인질사건이 발생해서 위치가 확인되는 곳이 합천 관내라고 해서 바로 강의를 중단하고 현장으로 달려가서 인질범을 추적하고 대치하였습니다.

거의 24시간 상황을 관리하면서 특공대도 배치되고 위기 협상요원까지 투입하였는데 서장으로서 현장에 출동해서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상황을 지휘하면서 아무런 인명피해 없이 인질을 구출하고 인질범도 자수시킨게 경찰 생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기도 하고 보람 있기도 한 사건이었습니다.

청송심문에 대한 평소 생각과 집안의 분위기 등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시다 시피 조선시대 정승 13명, 왕비 3명, 부마 4명, 대과급제 196명, 무과급제 350명을 배출한 명문 가문의 후손으로서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훈은 '家和萬事成'으로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로 가정의 화목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가족간의 화목을 위해 서로 노력하는 분위기입니다.

경찰공무원으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한 책무도 많이 느끼실 텐데요 향후 계획에 대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해 왔듯이 경찰에 처음 입문할 때 가졌던 신선한 생각을 '국민한테 봉사하고 초심을 잃지 않겠다' 항상 되새기면서 초지일관되게 실천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뚜렷한 계획보다 최선을 다하면서 매 순간을 열심히 생활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믿고 생활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여론 조사를 보면 경찰관이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매우 선망하는 직종으로 떠올랐는데요 경찰관을 꿈꾸는 미래세대에 한 말씀 해 주세요.

제가 경찰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생활해 보니 상당히 매력적인 직업입니다. 경찰내에는 수사, 정보, 안보, 경비 등 타 직업과는 달리 다양한 경험을 해 볼 수 있는 분야가 많아서 굳이 어느 분야가 적성에 맞지 않더라도 다른 기능으로 옮겨서 쉽게 자기의 적성을 찾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특히 각 분야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 보람있는 직장생활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기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주세요.

일가 어른분들 모두가 계묘년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인터뷰질문=심재윤 코리아타임스 논설위원)

일가 기업탐방 – 국내 가스 산업계 '맏형' 인천 삼정가스공업(주)

우애 넘치는 3형제가 가스산업 세계 1등을 꿈꾼다.

왼쪽부터 막내 심승일, 장남 심용일, 차남 심수일 회장 3형제

삼정가스공업 주식회사는 심용일 회장과 두 동생 각자의 전문성과 재능을 접목하여 창업한지 33주년된 3형제기업이다. 장자 심용일 회장은 어렵게 마련한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부지에 자신이 직접 공장을 설계, 건립하고 회사 사규 제정 등 기업경영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둘째 수일 회장은 초기 대표이사를 맡아 경영을 총괄하고, 특히 재정운영의 전문성과 뛰어난 친화력으로 대외활동에 주력하였으며, 막내 동생 승일 회장은 빼어난 영업력과 치밀한 기획력 그리고 강력한 추진력 등 강점을 발휘하는 3형제 기업체제로 출범시켰다.

오늘날 국내 가스산업의 '맏형'으로 우뚝솟은 강소기업 삼정가스공업의 성장 배경은 심용일 회장을 비롯한 3형제의 '우애와 배려를 기초한 의기투합'의 결실에서 찾는다.

3형제의 경영철학인 사훈(社訓) 인화단결, 근면성실, 공존공영에서 잘 나타나 있다. 최우선의 가치인 인화단결은 어린시절 형제의 모든 행위에 대한 '장남 연대책임론'을 실행한 선친(鳳傑)의 훈육방식에서 '우애와 배려의 리더십'이 체질화되었다고 한다. 사원들에게도 가족처럼 배려하다보니 창업때 입사한 직원들이 아직까지 다수가 근속하고 있다. 또한 근면성실과 공존공영의 가치는 기업의 생존전략으로서 3형제가 솔선수범하고 있다.

그 결과 삼정가스공업은 고압가스 레이저와 특수혼합가스 등을 제조·충전해서 전국 6000여개 기업체에 최고 양질의 산업가스와 특수가스 등을 공급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에 둔 본사 삼정가스공업 주식회사를 비롯하여 경기도 포천에 삼정산업가스(주), 경기도 화성에 삼정특수가스(주), 삼정엔지니어링(주), 삼정바이오솔루션(주), 충청남도 공주에 삼정가스화학(주), 경기도 파주에 삼정에너지(주), 전라북도 김제에 삼정가스텍(주) 등 전국 8개 계열사와 2개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으며, 임직원은 총 160여명이 종사한다.

2008년도 대통령 산업포장, 2014년도 대통령 철탑산업훈장, 2021년도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상하면서 승승장구한 삼정가스공업(주)의 주력산업은 특수가스 생산과 바이오 의료가스 공급이다. 고압가스산업은 모든 산업의 기초 소재로서 산소, 질소, 아르곤 등 여러 가스 공급의 핵심산업으로 뿌리 산업을 비롯해 수출의 효자종목인 반도체와 철강, 그리고 기계, 전자, 식품, 조선과 화학, 의료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산업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지난 해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네온과 제논 가스 부족문제가 대두되면서 특수가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이 첨단화되고 나노단위의 초정밀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특수가스의 수요는 더욱 급증하는 추세이다.

특수혼합가스는 제논, 크립톤, 반도체의 회로 패턴을 새기는 데 필수적인 네온, 흔적이 남지 않는 용접에 반드시 들어가는 헬륨, 식품을 신선하게 배달하기 위한 드라이아이스 등 희가스와 삼불화질소, 모노실란, 육불화황, 암모니아, 염화수소, 브로민화수소, 아산화질소 등은 혼합가스로 구분하는데 아래 〈사진〉에서 자세히 살펴 볼 수 있다.

국내외 가스산업의 발전가능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심용일 회장 3형제의 2세들이 미래를 향한 기업경영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심수일 회장 장남 승후(재홍) 영업관리실장은 캐나다 밴쿠버의 콴틀란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애틀랜타에서 골프관련 사업을 하던 중 삼정가스의 부름을 받고 삼정에너지(주) 공동대표 이사를 맡고 삼정가스공업 영업부에서 경영수업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다.

막내 심승일 회장의 장남 심재우 삼정에너지(주) 공동대표이사는 서던캘리포니아대학 경영학을 전공하여 외국계기업에서 5년간 경력을 쌓은후 다시 고려대학교 MBA과정을 이수하였으며, 현재 삼정가스공업(주) 경영기획실을 운영하면서 영업, 관리, 회계, 인사 등 다양한 경험을 겪으며 경영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삼정가스공업의 지향방향은 미국이나 일본의 유수기업처럼 장수기업으로 성장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찾고 지역발전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막내동생 승일 회장은 현재 대한민국 가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한국고압가스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제5대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중소기업회장을 거쳐 현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금번 청송심씨종보 취재 기업탐방을 계기로 심용일 회장 3형제는 청송심문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대종회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다짐한다.

(취재=심지수 종보편집위원)

대표적 특수가스와 특징

희가스	제논(Xe)	대기 함유량 0.000009%, 무색 무취 비활성 기체, 가스방전램프, 레이저, 마취제, 신경보호제
	크립톤(Kr)	대기 함유량 0.00011%, 무색 무취 비활성 기체, 가스방전램프, 엑시머레이저, 전자기열량계, 자기공명영상
	네온(Ne)	대기 함유량 0.00182%, 불연성, 불활성 기체, 가스방전램프
	헬륨(He)	대기 함유량 0.0005%, 무색 무취의 기체, 광섬유 및 레이저, 목소리 변조
혼합가스	삼불화질소(NF_3)	비인화성 기체, 반도체 및 LCD 공정에 사용
	모노실란(SiH_4)	무색의 기체, 다결정 실리콘막 형성
	육불화황(SF_6)	대표적 온실가스, 반도체 생산 공정 사용
	암모니아(NH_3)	고약한 냄새, 비료 또는 요소 수지 생산에 사용
	염화수소(HCl)	반도체생산공정, 약품, 살균
	브로민화수소(HBr)	무색의 불연성 기체, 의약품 원료
	아산화질소(N_2O)	무색, 향기와 단맛, 일명 '웃음 가스', 마취성(의료용)
초고순도	순도 99.999~99.99999(5~7N)의 가스 알곤(Ar), 산소(O_2), 질소(N_2), 탄산(CO_2) 등	

〈자료: 삼정가스공업〉

심판서 묘역 탐방기 연재 ③

세전(世傳) 안동 심판서 묘역 특별 탐방기

-4세조 악은(岳隱) 심원부(沈元符), 5세조 영동정(令同正) 심천윤(沈天潤), 6세조 석촌(石村) 심효상(沈孝尙)의 실전된 묘를 찾아서-

연재 순서

Ⅰ. 두 번에 걸쳐 탐방한 세전 안동 심판서(沈判書) 묘역
Ⅱ. 방치된 여말선초(麗末鮮初)의 묘 양식 4기
Ⅲ. 세전 심판서 묘와 관련한 사료 및 전설 조사
Ⅳ. 심원부 선조님은 두문동 72현의 한 분이신가
Ⅴ. 사료 조사만으로 추적한 심원부,심천윤,심효상의 묘
Ⅵ.'세전되는 안동 심판서 묘역'과 '사료 조사 및 여말선초 제도와 관행만을 토대로 추적한 묘역' 비교
Ⅶ. 세전 안동 심판서 묘소 관리와 묘의 주인공 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Ⅷ. 탐방기를 마치며

Ⅶ. 세전 안동 심판서 묘소 관리와 묘의 주인공 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1. 세전 안동 심판서 묘소 관리

어떤 묘소의 주인공을 찾아 조사할 때에 그 조사 결과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사실로 단정할 수도 없지만, 사실이 아니라고도 단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그 묘소 주인공의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이를 방치한다면 결국은 훼손, 멸실 또는 수몰 등이 될 수 있어 추후 사실임이 밝혀져 묘소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도 이미 묘소는 훼손되어 사라지게 될 개연성이 높아 문화유산이 흔적없이 사라지는 아픔을 겪을 수 밖에 없다.

그러면 고증 등을 통해 묘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결정되기 전에 그 묘는 어떻게 관리하여야 할까? 가문있는 대부분의 집안에서는 훼손 등을 막기 위하여 먼저 여러 방법으로 관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안동의 세전 심판서 묘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전 관리가 필요한 묘이다. 더욱이 세전 안동의 심판서 묘는 여말선초 묘 양식으로 조성된 옛무덤 사적지로 문화재적 가치도 있어 보존 관리가 더욱 필요한 묘이다.

2. 추정 묘 관리 사례

이에 대해 전주이씨 시조 묘, 태조 이성계 5대조 묘, 청송심씨 중대산 묘, 전백이정 묘(傳 白頤正 墓) 등의 사례를 참조하여 관리하는 것을 제안해 본다.

(1) 우선 전주이씨 시조 이한(李翰)의 묘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이한 추정묘와 조경단 전경. 사진제공=국립전주박물관

전주 이씨의 시조는 신라 때 '사공' 벼슬을 한 '이한(李翰)'이다. 전주이씨는 정확한 시조 묘의 위치를 찾지 못해 시조 묘로 추정되는 전라북도 전주시 건지산에 봉분을 만들어 묘를 관리하고 정방형의 제단인 조경단(肇慶壇)을 설치하여 제사를 지내고 있다.

조경묘 정묘. 사진제공=국립전주박물관

아울러 전주시 경기전 북부에 사당인 조경묘(肇慶廟)를 건립하여 관리하고 있다.

(2) 그리고 강원도 삼척시에 있는 태조 이성계의 5대조인 이양무의 부부 추정묘는 고종 때 각각 삼척 준경묘·영경묘(三陟 濬慶墓·永慶墓)로 결정하여 제사를 지내고 있다. 이양무는 고려시대 인물로 태조의 5대조이며 목조(穆祖) 이안사(李安社)의 부친이다. 그의 부인인 삼척

준경묘

영경묘

이씨는 상장군 이강제(李康濟)의 딸이다. 목조가 전주를 떠나 강원도로 이주할 때 이들도 함께 동행하였다고 전한다. 강원도 삼척의 마을인 노동(蘆洞)과 동산(東山)에 있는 고총(古冢)이 그들의 무덤이라는 주장이 조선 초기부터 있었다. 확실한 증거가 없어 조선 조정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무덤은 국가의 수호를 받았다. 그리고 대한제국 시대 광무3년(1899년) 4월16일에 고종황제가 공식적인 선조의 묘로 추봉(追封)하고 묘와 재각, 비각 등을 수축·정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3) 청송심씨에서도 옛부터 고을사람들로부터 심씨 집안 묘소로 구전되어 오던 이야기를 토대로 경상북도 청송군 중대산의 묘를 청송심씨 대종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 묘는 세상에서 전하는 말은 심씨의 선조 묘라고도 하고 또 청송심씨 시조인 문림랑공의 배위 묘라고도 하나 어느 대인지 또 어느 분의 묘인지 알 수 없다. 조선 후기에 심씨의 외손 참의 성환이 이고을 부사로 있을 때 비록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하나 옛부터 고을사

경상북도 청송군 중대산 묘

람들의 전해 내려오는 말에 또한 상고할 것이 없다고만 할 수 없어 황폐하게 두어서는 안된다 하고 다시 봉축하고 호장으로 하여금 향사케 하고 또한 가까운 절의 중으로 하여금 수호케하여 오다가 오늘날 청송심씨 대종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4) 고려 후기의 유학자인 백이정(1247~1323) 선생의 묘소는 '백정승의 묘'라고 전해 내려오는 곳을 토대로 관리되고 있는 묘소이다. 이 묘는 확실한 고증이 없어 전해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라는 것을 밝히며 '전 백이정 묘(傳 白頤正 墓)'로 관리되고 있으며, 경상남도 기념물 제155호로 지정하였다.

전 백이정 묘(傳 白頤正 墓)

(5) 참고로 경남 통영에 있는 원균 묘 추정 봉분은 무관심에 방치되어 도로 확장으로 사라질 판에 있어 향후 이 묘의 처리에 관심이 쏠려있다. 이 묘는 마을 주민 사이에 엉규이(원균) 무덤 또는 목없는 장군 묘로 각종 문헌과 구전을 토대로 원균의 묘라고 주장되어 오고 있는 묘이다.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산 부근의 원균 추정묘

3. 묘의 관리 주체

그러면 묘의 관리 주체는 누가하여야 하는가?

여말선초의 묘라면 해당 지자체나 문중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지자체는 도굴, 훼손된 조선 초기 묘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복원을 통한 역사문화 자원 활용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발굴조사 실시가 가능할 것이다.

4. 묘의 주인공 결정

최종 묘의 주인공 결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고증자료를 발굴하거나, 주변 조사하여 비석 등을 발견하거나, 묘를 정비하여 묘지석(墓誌石) 등을 발견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묘지석의 경우 대개 봉분(封墳) 바로 앞에 그리 깊지 않게 묻고 있다. 즉, 무덤 근처 남쪽에 묻는다. 그러나 예외는 있다. 묘지석을 관 위에 올려놓기도 하고, 관 안에 껴묻기도 한다.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묻는 경우보다는 안 묻는 경우가 더 많았다. 지석을 묻는 이유는 시간이 흐른 뒤에도 후손이 조상의 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더불어 묘 주인의 생시의 행적을 후세에 남기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고려시대 지석의 재료는 오석(검은빛을 띠는 돌)을 많이 이용하였다. 이에비해 조선은 저렴한 자기로 만든 지석을 널리 이용하였다.

그리고 묘의 주인공이 확정되고, 묘역에 대한 상세한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지속적이고 연계성 있는 발굴조사, 연구 등이 필요하다.

Ⅷ. 탐방기를 마치며

안동의 한 마을에서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전해오는 이야기를 어느 촌로의 말을 듣고 시작한 답사 여정은 막을 내리고, 세전되어오는 안동의 심판서 묘를 다시 정리하여 보자.

어쩌면 세전되어오는 안동의 심 판서 묘는 630여년간 잊혀진 전리판서를 지낸 심원부 선조님의 묘일 수 있다. 아니, 여말선초의 심씨 묘로 판서를 지내신 분의 묘라면 심원부 선조님 묘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4기의 묘 중 규모가 가장 큰 아래로 세번째 묘가 심원부 선조님 묘라면 묘의 규모로 보아 위의 2기의 묘는 심천윤과 배위 묘, 맨아래는 심효상과 배위의 합장 묘일 수 있다.

여말선초에는 묏자리를 위쪽, 아래쪽보다는 좋은 자리인가 아닌가가 판단의 기준이 됐다. 먼저 좋은 자리에 부모를 모시고 그 위에 자신을 비롯해 순서에 따라 안장하였다. 안동의 세전 심판서 묘도 역장이나 문제될 것은 없다. 고려의 능침은 일반적으로 각각 다른 지역에 써서 성묘가 불편하고, 관리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비가 많이 들며, 손이 미치지 않는 관계로 누구의 것인지 판명키 곤란한 단점이 있었으나 여말선초에는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족의 사망자는 같은 산에 모시는 족장이 나타나고 있다.

후손들은 '세전 안동 심판서 묘'의 주인공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전주이씨 시조 등의 전례를 따라 예를 다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또한 가치있는 문화적 행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선조님들의 자취에 대해 좀 더 넓게 바라보아 역사적 사실은 물론이고, 다소 역사적 사실에 미흡함이 있는 구전 이야기 등도 그 내력을 밝히고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지난 선조의 이야기가 햇빛에 바래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물들면 신화가 되고, 별빛에 비추면 소설이 되겠지만,
역사도, 신화나 전설도, 그리고 소설도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데 있어 모두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고 하지 않는가

〈마지막 편〉

규명위원회 인적구성

위원장	재오 송소고택 장주
위 원	종래 안효공파효창공종회
	장섭 악은공종회 총무
	광섭 전 악은공종회 총무
	준섭 석촌공종회 총무
	상벽 석촌공종회 재무
	상헌 청송사학연구위원
	남규 전 청송군 사무관
	상규 대구 축협 지점장
특별위원	상조 석촌공종회장
	재열 안효공파·교수
	상억 대종회 문화이사

종회탐방 특집…청헌공파의 공주입향 뿌리찾기

청헌공 공주입향 학술세미나 취재 연재 ②
종보 158호에는 청헌공 심택현 선조에 관한 인물연구, 공주 입향시기와 배경, 입향 연고와 정착, 조선시대 인물(후손) 일부를 싣고, 종보 159호에 조선시대와 근현대 인물(후손)과 공주에 남은 청헌공파의 문화유산 등을 연재합니다.

4. 청헌공 후손 주요인물

〈조선시대〉

■ 심순택 (沈舜澤,1824-1906)

청헌공의 5세손으로 자는 치화(穉華),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1850년(철종1년)에 증광문과, 1852년에 한림초시에 급제하고 홍문관 교리, 안변군수, 이조참의, 충청도관찰사를 거쳐 예조·형조·이조판서를 역임하였다. 1881년에는 개화정책을 총괄하는 통리기무아문을 관장하고 1883년 양관 제학에 임명되었다. 1884년 우의정과 좌의정을 역임하고, 갑신정변 후 영의정에 올랐다. 1894년 갑오농민전쟁을 빌미로 일제가 강압적인 내정개혁을 요구하자 사직으로 대응했다. 1897년 대한제국을 수립하는 과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초대 議政 대신에 임명되었다. 1904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상소를 올려 을사5적의 처벌을 주장하고 자결을 시도하였으나 고종의 만류로 무산되었다.

1906년 고종황제가 조령을 내려 대한제국 최초의 '공작'작위를 내리고 청령공에 봉하였다.

■ 심이택 (沈履澤, 1832-1892)

심의린의 아들이자 심순택의 아우로 심의면에게 입양되었다. 1857년 정시문과에 급제하고 1858년 규장각 대교로 등용된 후 동래 암행어사, 의주부윤을 지냈다. 1873년 이조참의에 오르고 우승지, 성균관 대사성을 역임한 후 외직으로 나가 개성부유수, 전라도관찰사, 광주부유수, 한성부판윤을 지냈다. 1878년에는 전라도관찰사에 1880년 12월까지 3년여에 걸쳐, 전라도 지방의 수반으로 자연재해를 당한 전라도 지방민의 진휼 문제, 서해안 지방의 이양선 출몰 상황, 수세(收稅)에 따른 애로 사항 등을 일일이 기록하여 조정에 보고, 조정에서 실정에 맞는 시정(施政)을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그 공을 인정받아 광주부유수(廣州府留守)로 뽑히었다. 그후 다시 내직으로 들어와 공조·이조·예조·형조·호조판서를 지내고 판의금·판돈녕부사를 거쳐 1887년 의정부 좌참찬에 올랐다. 이어 예문관 ·홍문관 제학과 시강원 우·좌빈객을 지냈으며 1889년에는 내무독판이 되었다.

■ 심상찬(沈相瓚, 1856-1898)

심희택의 아들로 심훈택에게 입양되었으며, 자는 보경(寶卿)이다.

1880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규장각 직각, 시강원 문학, 시강원 필선에 임명되어 세자 교육에 힘썼다. 1887년 이조정랑과 통례원 상례를 역임하고 1890년 성균관 대사성을 거쳐 1894년 조선의 마지막 이조참의를 지냈다. 대한제국 수립후에 시강원 부첨사, 봉상사 제조를 역임하고 칙임관4등을 거쳐 중추원1등議官에 올랐다.

〈근·현대〉

■ 심상교(沈相喬,1837-1918)

청헌공의 6세손으로 자는 세경(世卿) 호는 청사(晴蓑)이다. 1897년에 후릉참봉, 1902년에 혜민원 주사에 임용되었다.

일제의 침략 야욕에 단호한 대처를 주장하여 유림사회에서 의병 지도자로 추대되었으며 1905년에는 을사늑약을 규탄하는 상소를 올렸다. 1910년 경술국치 후에 일제의 집요한 회유가 있었지만 항일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문집으로 '청사유고(晴蓑遺稿)'를 남겼는데 시문들은 세속에 구애받지 않는 호방한 성격에서 비롯된 문예적인 작품이 있는가 하면, 외세의 침략에 굴하지 않고 단호히 맞서며, 나라가 처한 현실에 비분강개하며 울분을 토로하는 작품이 공존하고 있다.

■ 심기섭(沈驥燮, 1873-1945)

청헌공의 7세손으로 개화기 교육 선각자이다.

일찍이 서울에서 신학문을 배우고 교육입국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뜻을 품고 낙향하였다. 민족적 자각심을 기르기 위해서는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898년 충남 공주지역에 개화기 근대학교이며 민족계 사립초등학교인 공주사립소학교를 설립하였다.

교과목은 국어, 산술, 한글, 습자 등 기초적인 신학문을 가르쳤다.

을사늑약 체결 후 1906년 '보통학교령'에 따른 학제 개편으로 공립공주보통학교(현재의 공주중동초등학교)로 바뀌면서 공주사립소학교는 8년만에 문을 닫았지만 재학생들이나 지역주민 들에게 크게 인정을 받았다. 당시 조선어 교과서에는 안중근 의사 이야기가 들어 있었고 한일합방 후에는 조선인이 쓴 교과서를 압수당하는 시련을 겪기도 했다.

■ 심재욱(沈載昱,1887-1961)

청헌공의 8세손으로 일제강점기 공주지역의 교육사업가이자 경제인이다.

수원농림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에 돌아와 낙후된 농업시설을 개선하고 영농사업을 일으키는데 힘을 쏟았다. 공주 일대에 대규모 뽕나무 밭을 조성하여 잠사업을 크게 진흥시키고, 1920년에는 조선잠사회 설립에도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또한 교육사업에도 열성을 보여 공주에 능인학원과 명륜고등공민학교를 설립하여 국민학교와 공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보통교육과 공민적 사회교육을 실시하다가 1953년 공주사대부속중학교에 학교를 양도하였다.(자료출처:공주학아카이브)

1920년에는 토지개간, 수리사업, 농업투자를 위해 남선흥업주식회사를 설립하고 1934년에 충남금융조합장으로 추대되어 지역의 농촌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심재갑(沈載甲, 1904-1989)

청헌공의 8세손으로 호는 영암(映岩)이다.

일제강점기에 국권회복의 지름길은 교육에 있음을 자각하여 일찍이 사도의 길을 결심하고 공주공립사범학교를 졸업하였다.

일제 치하에서 민족주의자로 지목되어 많은 고통과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청양, 연기, 공주 등 열악한 환경속에 있는 농촌지역의 초등교육에 힘썼다. 해방 후 혼란기에 공주 호계초등학교 교장을 시작으로 강경중앙초교, 논산 부창초교, 대전원 동초교, 대전신흥초교 교장을 역임하고 1961년에 제3대 대전시교육감으로 선출되어 취임하였다. 1962년 교육자치제 폐지로 교육감에서 물러난 후 대전천동초교, 대전문창초교, 대전외삼초교를 거쳐 대전갈마초교 교장을 마지막으로 정년퇴직 함으로써 일생을 교육자로 헌신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적을 인정하여 대통령표창(2회)과 녹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 심재승(沈載昇,1910-1944)

청헌공파의 8세손으로 심재갑의 아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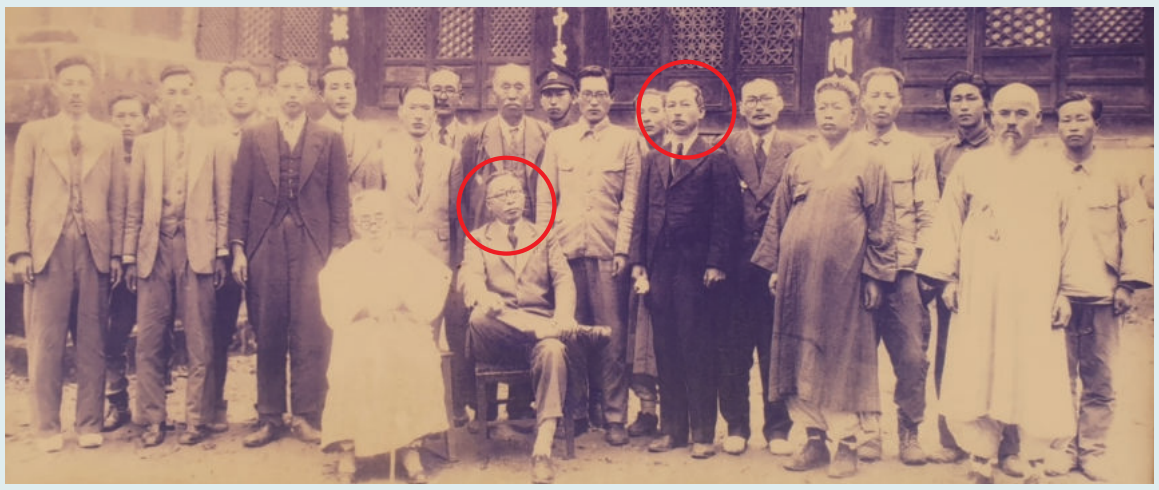
심재승은 伯兄인 심재갑과 함께 일찍이 교육자의 길로 나섰다. 그는 일제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교육시켜 민족혼을 일깨워야 한다는 신념이 확고하였다. 24세의 젊은 나이에 愛國愛民과 민족주의를 고취하기 위해 공주시 반포면 성덕리(1973년 연기군 금남면으로 이관)에 성덕학원을 세웠다. 그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문맹퇴치에 힘쓰자 이에 감동한 인근주민이 거액을 기부하여 1937년에는 성덕학원을 사립 성덕보통학교로 승격시켰다. 당시 그 지역에는 이미 일제가 세운 공립 반포보통학교가 있었음에도 심재승이 대담하게 민족주의 사립학교를 세웠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 학교 설립 후 심재승은 교장을 맡아 직접 우리글과 역사를 가르쳤다. 일제는 성덕보통학교가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교육에 힘쓰자 1943년 3월말 강제로 폐교시켜 공립학교로 전환시켰다. 비록 6년만에 학교는 폐쇄되었지만 심재승의 독립정신은 지금도 교육도시 공주의 역사가 되고 있다.

심재승은 독립운동에도 적극 나서 김구선생을 통해 독립자금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해방후에 김구선생이 마곡사를 방문한 기회에 심재승을 찾았으나 사망소식을 듣고 애석하게 여겨 대신 伯兄인 심재갑을 면담하기도 하였다.

■ 심재호(沈載昊, 1915-2007)

청헌공의 8세손으로 호는 청석(靑石)이다.

1936년 서울 중동학교(현 중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체신국에 근무하던 중 해방을 맞자 공주로 낙향하여 교육현장에 뛰어들었다. 그는 해방된 조국의 개명(開明)과 부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문맹퇴치와 국민계몽이 가장 필요하다는 신념으로 伯兄인 심재갑과 함께 농촌 지역의 초등교육을 위해 힘썼다. 1945년 초등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1958년 공주 의랑초교 교장을 역임한 후 우성초교, 계룡



1945년 광복후 충청남도 공주시 태화산에 소재한 마곡사를 다시 찾은 상해임시정부 주석 김구 선생(양복차림으로 의자에 앉은이)...당시 일행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 백범 왼쪽 두번째가 청헌공 8세손 심재갑 대전교육감(양복정장)

초교, 천안 천동초교, 조치원 신봉초교, 공주 반포초교, 귀산초교 교장을 거쳐 신관초교 교장을 마지막으로 정년퇴직 하였다. 특히 그는 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문맹퇴치를 위해 학부모들을 설득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위에서 많은 칭송을 받았다. 정부는 그의 공로를 인정하여 1975년 국민훈장 석류장, 1980년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여했다. 식민 치하였던 1938년에 기독교에 입문하여 1951년 장로 안수를 받았고 1953년부터 논산부적교회, 대전진잠교회, 공주송학교회, 공주기산교회, 논산석종교회를 차례로 개척하여 가정을 회복하고, 미신을 타파하며, 도박에 빠져있던 농촌을 구제하는데 앞장 섰으며 성경과 찬송 보급을 통해 문맹 퇴치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 심종석(沈宗錫, 1908-1988)

일제강점기에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하고 황해도 신계군과 신천군의 군수를 지냈다. 해방 후 미군정 하에서 서울지방법원 소년부 판사를 역임한후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1960년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 제5대 국회의원(초대 참의원)에 당선되어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냈다.

박정희 정권 출범 후에는 민주공화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며 이후 증권업계에 뛰어들어 제일화재보험 전무, 동일증권 사장, 삼화흥산 회장, 대한증권업협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심우성(沈雨晟,1934-2018)

청헌공의 10세손으로 공주를 대표하는 민속학자이자 연극 배우이다.

대학생 시절인 1954년 서울중앙방송국(KBS의 전신)의 아나운서로 일하다가 민요 채록의 길에 뛰어 들었다. 탈춤과 농악, 민요 등을 수집해 연구했으며 특히 남사당패 연구에 깊이 파고 들었다. 1959년에 거의 명맥이 끊겼던 '꼭두각시놀음'을 재연하여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받았고 2009년에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1965년 인형극회 남사당을 창단해 이끌었으며, 1966년 한국민속극연구소를 설립했다.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장기간 재임하면서 〈밀양백중놀이〉, 〈살풀이춤〉, 〈발탈〉 등 우리의 전통예술을 중요무형문화재로 발굴하기도 하였다. 또한 연극 공연에도 뛰어들어 〈말뚝이세상〉, 〈새야 새야〉, 〈결혼극〉등 많은 주옥 같은 작품을 남겼다.

심우성은 우리의 전통문화예술을 이론적으로도 연구하여 〈남사당패연구〉, 〈한국의 민속극〉, 〈민속문화론서설〉, 〈한국전통예술개론〉 등 왕성한 저술활동을 함으로써 명실공히 한 시대를 이끌어온 민속학의 선구자로 평가되고 있다.

■ 현존하는 청헌공파의 주요 인물

청헌공파 후손들은 선조들의 훌륭한 업적과 명성을 이어받아 현재 사회 각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청헌공의 9세손이자 심재갑의 장남인 심대평은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의정부 시장, 대전시장, 충남도지사와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 대통령 행정수석비서관을 역임하였고 1994년 초대 민선 충남도지사에 당선된 후 3선을 연임하였다. 그후 정계로 진출하여 자유민주연합 부총재, 국민중심당 대표, 자유선진당 대표가 되었으며 제17대와 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13년에는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장관급)에 임명되어 두 번의 임기를 마쳤다. 현재는 청송심씨 대종회장을 맡으면서 문중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청헌공의 9세손인 심은석은 휘경초교 교장, 한국초중고등학교 교장총연합회 회장,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국장, 서울강서교육청 교육장, 교육부 학교정책국장,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을 역임하였으며 한서대학교 교수를 지냈다. 교육계의 각분야를 두루 섭렵하며 우리나라 교육계를 이끌어온 전문 교육인이다.

청헌공의 9세손으로 동명이인 심은석은 세종경찰서장, 충남경찰청 정보과장, 유성경찰서장, 영동경찰서장, 대전경찰청 안보수사과장 등 충청지역에서 경찰조직의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고 공주경찰서장으로 퇴직하였다.

청헌공의 10세손이며 심대평의 장남인 심우정(沈雨廷)은 서울지검 검사로 법조계에 발을 내딛은 후 법무부 검찰과장, 서울지검 형사1부장, 법무부 기조실장을 거쳐 검찰청의 요직인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인천지검 검사장에 재직 중이다. 지난 9월에는 국제검사협회에 대한민국 대표로 참석, 집행위원으로 선출됨으로써 沈門의 명예를 빛냈다.

이렇듯 청헌공파는 조선 중기 공주 입향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300여년간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며 공주, 충남의 지역 발전과 나라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함으로써 공주의 명문가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개화기와 일제강점기에 심기섭을 비롯하여 심재욱, 심재갑, 심재승, 심재호 등 많은 교육 선각자들을 배출하여 엄혹했던 시대 민족교육에 힘씀으로써 오늘날 교육중심도시로서 공주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5. 공주에 남은 청헌공파의 문화유산

《청헌공파의 종가》

공주시 의당면 율정리 본동에는 청헌공의 후손들이 대대로 거주해온 종가를 종손인 28세손 심명용이 지키고 있다. 당초에는 'ㄱ'형의 안채와 'ㅡ'형의 사랑채, 헛청, 바깥변소 등의 건물과 함께 마당에 작은 정원도 꾸며져 있었다.

얼마전까지 'ㄱ'형 안채만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안채를 중수하고 사랑채를 복원하는 공사 중에 있다.

《주요 인물 묘역》

■ 심택현과 전주 이씨 부부 묘

입향조인 심택현의 묘는 율정 종가의 뒷산에 썼으며 전주 이씨를 부좌하였다.

배위 전주 이씨는 증 이조판서 이한익의 여식이다.

묘역은 상석, 망주석, 묘비로 조성 되어있다. 묘갈명은 영의정 유척기(俞拓基)가 찬하고, 墓碑銘은 현손 심의면이 찬하고 5대손 심경택이 썼다.

■ 심규와 경주 김씨 부부 묘

심규는 심택현의 장남으로 당초에는 의당 수촌리에 묘가 조성되었지만 지금은 율정 부친 묘소 아래에 이장되었다. 배위 경주 김씨는 영의정을 지낸 김흥경의 여식이다.

■ 심구와 안동 권씨 부부 묘

심구는 심택현의 차남으로 율정 부친 묘소 아래에 조성되어 있다. 배위 안동권씨는 판관 권탁의 여식이다.

■ 심관지와 안동 권씨 부부 묘

심관지는 심택현의 손자로 의당 수촌리 묘역에 조성되어 있다. 배위 안동권씨는 권혁의 여식이다.

■ 심풍지와 기계 유씨 부부 묘

심풍지는 심택현의 손자로 율정 묘역에 합장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墓碑銘은 차남 심능악이 지었다. 배위 기계 유씨는 첨정 유언수의 여식이고 유척기의 손녀이다.

《소장 자료와 유물》

집안에 대대로 전승되는 다량의 유물은 율정리 종가에서 종손 심명용이 소장하여 관리하고 있다.

■ 전적류

총 109점의 전적이 발견 조사되었는데 장서 중에는 유일본으로 보이는 자료와 書誌學的 측면에서 가치가 있는 목판본 등이 포함되어 있어 청송심문의 높은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심택현의 시호 '淸獻'이 내려진 시장(諡狀)과 심관지가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영조어제필첩(英祖御製筆帖)은 주목되는 사료이다. 또한 돈암서원의 아한정(雅閑亭)과 양성당(養性堂)의 제영(題詠)을 엮은 시첩은 매우 희귀본으로 사료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 문서류

총175점의 문서가 발견 조사되었는데 수량이 가장 많은 것은 일종의 왕명서인 敎旨이다. 1633년 심세정의 생원입격 교지인 백패(白牌)부터 1754년 심덕순의 母 공인 류씨를 정부인에 증직하는 교지까지 124점이 있다. 그밖에 간찰, 호구단자, 상장, 회의록 등이 있다.

■ 민속유물류

심택현과 장남 심규가 사용했던 호패를 비롯하여 갓, 탕건, 부채, 담배곰방대 등 다수가 있다. (마지막 편)

연재에 도움 주신 분
심대평 대종회장
심은석 전 교육부학교정책실장
심명용 청헌공파공주종회 회장
심우언 청헌공파공주종회 총무
심재금 김포한강신협 본점 전 이사장
심종래 종보편집위원
심창래 종보편집위원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우리 청송심가 이야기 (28)

옳고 그름이 분명해야 한다

- 대부(大孚) 할아버지의 올곧은 태도

沈厚燮
아동문학가 · 대구문인협회장

형보(炯輔)야, 너도 옳고 그름을 따져 본 적 있겠지? 그럴 때에는 어떠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니?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전곡3리에 가면 조선 숙종 때에 세워진 소양서원(瀟陽書院)이 있어. 이 서원은 경상북도 문화재 제505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곳에 우리 집안의 대부(沈大孚, 1586~1657) 할아버지가 모셔져 있어.

대부 할아버지가 모셔진 소양서원

대부(大孚) 할아버지는 안효공파 11세조로 조선 중기의 문신이셨어. 자는 신숙(信叔). 호는 범재(泛齋)라고 하셨고.

사간원(司諫院)의 정언(正言) 벼슬에 계실 때, 사사된 인성군(仁城君)의 세 아들이 위리안치(圍籬安置)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방면(放免)을 주장하다가 좌천되셨어. 자식이라 하여 함께 벌을 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던 거야.

'귀양을 가더라도 정언이라면 소신대로 말해야 해.'

이것이 대부 할아버지의 태도이셨던 거야.

그 뒤, 1634년 송화현감(松禾縣監)으로 계실 때에는 명(明)나라 장수 모문룡(毛文龍)의 군사들이 이 지역에서 횡포를 많이 부렸어. 고을 사람들에게 곡식을 거두어가고 소를 끌어가고 하였어.

이에 대부 할아버지가 모문룡에게 따지셨어.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라 하였소. 우리가 힘든 형편을 맞아 도움을 청하였는데, 도리어 우리의 백성을 괴롭히는 일이 빈번하니 이것이 어찌 도리라 할 수 있겠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약조해 주시오."

그리하여 모문룡의 사과를 받아내셨어.

1649년 인조가 세상을 떠나자 묘호(廟號)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어. 즉 임금이 죽은 뒤에 붙이는 시호(諡號)에 '종(宗)'을 붙일 것인가, '조(祖)'를 붙일 것인가 하는 논쟁이었어.

이 때, 대부 할아버지는 이렇게 주장하며 '조'는 안 된다고 하셨어.

"(앞 줄임) 예로부터 조(祖)와 종(宗)의 칭호에 우열(優劣)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업한 군왕만이 홀로 조(祖)로 호칭되었던 것은 나라를 세운 1대(代)의 임금이어서 자손이 시조(始祖)로 삼았기 때문이었으니, 역대의 태조(太祖), 고조(高祖)의 등에서 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선대의 뒤를 이은 군왕들은 비록 큰 공덕이 있어도 모두 조로 호칭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漢)나라의 광무(光武)는 잃었던 나라를 되찾았으므로 이름은 비록 중흥(中興)이지만, 실제는 창업과 같기 때문에 스스로 대통(大統)을 전하는 시조(始祖)가 되어 조(祖)로 호칭되었습니다.

저 명(明)나라의 태종(太宗) 같은 이도 비록 건문(建文)의 난리를 평정하였으나, 실은 고황제(高皇帝)의 뒤를 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라고 호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가정(嘉靖) 17년에 와서 성조(成祖)로 추호(追號)하니 당시에 식자들의 비난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세조대왕은 친히 노산(魯山)의 선위(禪位)를 받아 위로 문종(文宗)의 계통을 이었는데도 오히려 묘호를 조(祖)라고 호칭한 것에 대해서는 신(臣)의 견문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선조대왕(宣祖大王)도 마찬가지입니다.(중간 줄임)

이러므로 선대를 이어받은 임금은 비록 공덕이 있다하더라도 모두 종(宗)이 되는 것이지 조(祖)가 되지 못합니다.(중간 줄임)

지난 역사를 상고해 보면, 그러한 흔적을 징험할 수 있으니 이른바 공이 있으면 조라 칭하고, 덕이 있으면 종이라 칭합니다만 그 뜻이 이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함께 종묘에 모셔졌다면 종이라 해서 조보다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조라고 해서 종보다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태종(太宗)·중종(中宗)·세종(世宗)·고종(高宗)은 묘호를 모두 종이라 칭하였습니다.

그러니 어찌 예를 어기는 혐의를 무릅쓰고 계통(繼統)의 의리를 어지럽히면서, 애써 조(祖)의 호칭을 써야 하겠습니까.(중간 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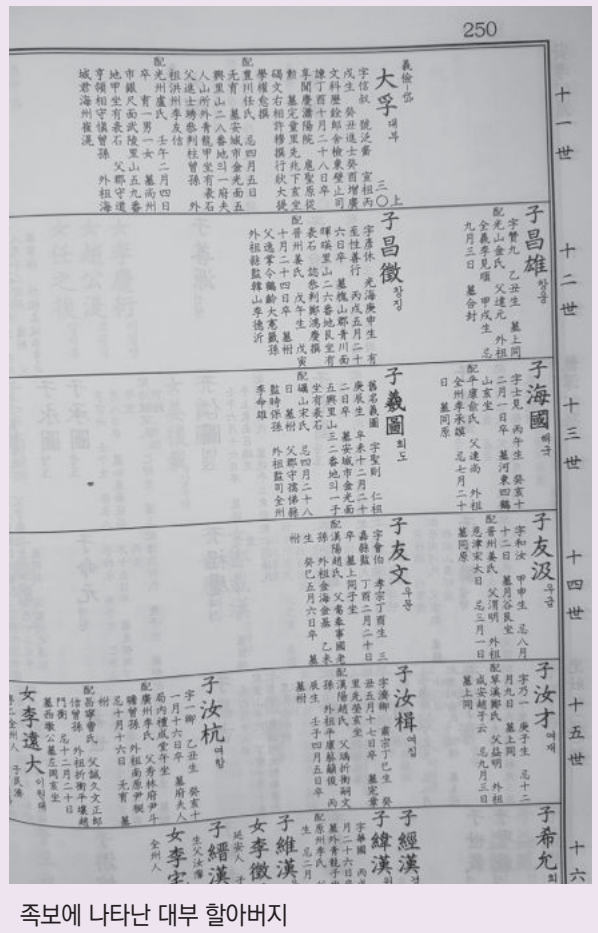
미천한 신은 식견이 부족하여 관직도 낮고 말도 천박한데다, 또한 상(上)께서 상중(喪中)에 계시는 이때에 이미 결정된 막중한 의논을 재론하여, 주제넘게 말씀을 올렸으니 그 죄가 만 번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생각건대 빈전(殯殿)에 책명(冊命)을 올릴 날이 머지않았는데 이때를 놓치고 말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게 되면, 선왕(先王)께 보답하고 전하께 충성할 직분을 시행하지 못하여, 평생 한(恨)을 안게 될 것이라 생각되어, 외람되이 시끄럽게 떠드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상소문을 올리려 하다가는 다시 말곤 하였으나, 끝내 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며, 인조의 묘호를 '조'가 아닌 '종'으로 할 것을 주장하셨어. 그런데 이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마침내 귀양을 가게 되셨어. 그러나 뒤에 귀양이 풀리었고, 그 강직한 성품을 본받으려는 선비에 의해 소양서원에 모셔진 것이었어.

그래, 우리도 대부 할아버지처럼 올곧은 태도로 분명한 주장을 내세울 수 있도록 애써야 하겠구나.



족보에 나타난 대부 할아버지

새해 희망과 포부를 듣는다… 미래의 동량(棟梁)

2022년도 행정고시 · 외무고시 · 변호사 · 관세사 합격 및 서울대 신임교수로 임용된 5명을 격려하기 위해 스타키보청기그룹 심상돈 회장(왼쪽 두 번째)이 참석했다.

심 수 연
서울대 생물교육과 교수
(2022.9.1.임용)

청송심씨 선배 교수가 찾아와서 일가의 '정(情)'을 느껴

*** 교수의 길을 선택하게된 동기와 포부는?**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여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 미래 우리나라 생명과학교육을 이끌어갈 교사, 연구자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

*** 생물교육과 교수로서 학술적 목표는?**

이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진행하여 우리나라의 과학교육을 한단계 발전시키고 싶다.

*** 청송심씨에 대해 들은 얘기나 생각은?**

어릴 적부터 청송심가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자랐다. 얼마전 청송심씨 선배 교수가 일부러 찾아오셔서 일가의 정을 느꼈다. 훌륭한 우리 가문에 누가 되지 않고,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 1992년생 ▲ 서울 출생
▲한성과학고 - 서울대 생물교육과

심 주 영
행정고시 국제통상직 합격
(2022.9.3 사무관 임용)

국제통상 발전에 기여하는 공무원이 될터

*** 행정고시를 선택한 배경은?**

공직을 통해서 저의 이익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이 공무원을 선택하게된 계기이다. 대학에서 국제업무와 기업 지원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국제통상을 통해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고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는 꿈을 갖게 되었다.

*** 사무관으로 출발한 공직자로서의 각오와 포부는?**

통상 파트 공무원으로 임용된 만큼 급변하는 세계 질서에 적당히 대응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이끌어 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이다. 통상 분야의 공직자로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 통상 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 전반에 관한 실무 경험을 쌓고 싶다.

*** 청송심씨에 대해 들은 얘기나 생각은?**

어렸을 때 할머니 댁에 있던 족보 덕분에 청송심씨가 유서깊은 가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뿌리를 잊지 않고 항상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

▲ 1998년생 ▲경기도 수원 출생
▲수원외고-서울대 불어불문과

심 여 진
2022년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연소 합격자

경제 지식을 바탕으로한 유능한 외교관이 되고파

*** 경제학도로서 외무고시에 지원하게된 동기는?**

우연히 국제정치학을 수강하면서 외교에 흥미를 느꼈고 교환학생으로 갔던 미국 대학에서 외국 학생들과 생활하며 외교관이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국제관계에서 경제력이 곧 국력임을 알고, 그러한 의미에서 경제학도가 외교관을 지망하는 것 역시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 활동 계획이나 포부는?**

경제학 전공자로서 무역과 국제경제개발협력, ODA(공적개발원조), 해외 투자 쪽으로 관심이 많다. 국제법에도 흥미가 있어 국제법 전문가가 되고 싶기도 하다.

*** 짧은 준비기간에 성공하게된 비결은?**

2022년 2월부터 본격 공부를 시작하여 일요일 빼고 하루 평균 13-14시간 정도 집중했다. 최근 시험 추세가 과거와 달리 지식의 축적도보다는 개인의 잠재적 역량을 평가하는 경향이 강화된 것이 운좋게 조기 합격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 2000년생 ▲ 서울 출생 ▲ 진선여고 - 서울대 경제학부

심 태 섭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2022년 4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법조인 될터

*** 비 법학 전공자로 변호사를 선택한 동기와 향후 계획은?**

경영학시간에 기업 경영에 있어 법적 규제가 많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관련 법무를 다루는 변호사가 되겠다. 금융과 기업법무에 전문성을 쌓고 싶으며, 특히 부동산 PF 분야를 적극적으로 다뤄보고 싶다.

*** 변호사로서 포부, 지향점은?**

법 전문가로서 사회가 건강해지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

*** 청송심씨에 대해 듣거나 아는 것은?**

아버지께서 심씨가문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청송심씨가 1세조 심홍부 할아버지에서 시작하였으며 저는 문정공파 일송 심희수 할아버지의 후손으로 알고 있다.

▲ 1994년생 ▲ 경기 성남 출생
▲ 분당 대진고 - 한양대 경영학과

심 혜 원
제39기 관세사 합격생
(2022년 10월)

수출입 전문분야에서 경제인을 돕고싶어

*** 전문 직종인 관세사를 지망하게된 동기는?**

국가간에 이뤄지는 무역 프로세스가 굉장히 흥미로웠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음에도 대금이 결제되고 운송되는 과정이 알고 싶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 향후 포부와 지향점은?**

관세와 국세를 심층 연구하여 최고 전문가로서 다양한 영역에서 수출입 회사나 화주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기회가 된다면 WTO나 WCO와 같은 무역관련 국제기구에서도 일해보고 싶다.

*** 청송심씨에 대해 듣거나 영향받은 것은?**

아버지께서 청송심씨에 왕비가 여러분 계시다고 말씀하셨고, 조상님들 중에 고위 관직에 계셨던 분들이 많다고 들었다. 그래서 조상님들의 유전자를 물려받아 능력을 발휘해야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 1998년생 ▲ 전남 여수 출생
▲ 과천외고 - 세종대 경제학과

(인터뷰질문 = 심재윤 코리아타임스 논설위원)

제주도 청송심씨 선정비

심 재 석 (종보기자)

1. 선정비(善政碑)는 '거사비·영세불망비'라고도 한다. 현재 전국에는 3,500기 정도의 선정비가 있고 그 중에 심문 선조님의 것은 100여 기 정도다.

2. 제주에는 청송 심문 선조 다섯 분의 선정비 7기가 남아있다. 제주도 전 지역에 남아있는 선정비는 148기인데, 가장 오래된 것은 심연의 선정비(1641년, 인조 19)이다. 제주도에 있는 심문 선정비를 도표로 나타내고, 인물별로 선정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번호	건립 연도	성 명	직위	위 치
1	1641	심연 沈演	목사	화북비석거리
2	1830.3	심영석 沈英錫	목사	제주향교
3	1832.4			자연사박물관
4	1832(?)			조천읍 신촌리
5	1862.2	심동신 沈東臣	어사	제주향교
6	1891.4	심현택 沈賢澤	목사	자연사박물관
7	1890.5	심원택 沈遠澤	목사	제주향교

① 심연(1587~1646)은 안효공파 영중추공 후예로, 심의겸(沈義謙)의 증손이며 대사간을 역임하였다. 병자호란 때는 경상감사로서 군사를 이끌고 남한산성으로 진격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심연 선정비. 제주시 화북동 〈화북비석거리〉.2022.10.4. 필자 촬영, 이하 동일. 심연의 선정비는 마모가 심하여 탁본을 해야만 글자를 알아볼 수 있다.

①비석 제목 : 〈목사심상연청덕선정비牧使沈相演淸德善政碑〉
②특징 : 제주도에 남아있는 선정비 총 148기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심연이 제주에서 베푼 선정은 많은 이들에게 감명을 주었던 것으로, 심목사가 제주를 떠나자 도민들은 "우리 고을이 생긴 이후 이러한 목사가 있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이제 공의 덕망이 우리 자손에게까지 미칠 것이니 어찌 잊겠는가."라고 칭송했다(심연묘갈). 제주에서의 공로로 비변사 당상으로 승진하였고, 훗날 함경도관찰사로서 임지에서 별세하였다.

②심영석(1767~1841)은 추우당 심단의 증손자로, 병조참판을 역임했다. 제주도에 3기의 선정비가 있다. 제주도민으로부터 징수하는 땔감과 숯을 반으로 감면해 주는 등 백성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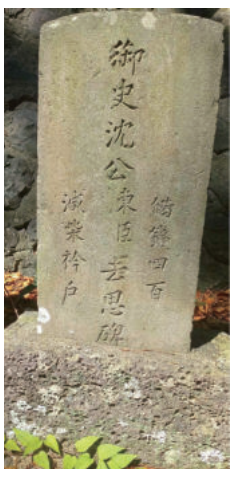
①제주향교 내
〈심사상영석 이건향교비沈使相英錫移建鄕校碑〉

②제주 자연사 박물관 내
〈사상심공영석 청덕선정비使相沈英錫淸德善政碑〉

③제주 조촌읍 신촌리
〈사상심공영석애민선정비使相沈公英錫愛民善政碑〉

①비석 제목 : 〈심사상영석이건향교비沈使相英錫移建鄕校碑〉
Ⓐ 비석 본문 : 自卜吉基 移建校宮 / 扶植本原 永世立功 직접 길지를 선택하여 향교를 옮겼네 근본을 세웠으니 그 공로 영원하리
Ⓑ 건립[후면] : 1830.3
ⓒ 건립 이유 : 제주향교는 원래 벌판인 광양에 있었으나, 심영석 목사가 지금의 용담1동으로 옮겼다.
②비석 제목 : 〈사상심영석청덕선정비使相沈英錫淸德善政碑〉
Ⓐ 비석 본문 : 視民如傷 濟弱扶傾 / 民役減木 永世不忘 백성을 다친 사람처럼 돌보고, 약하고 넘어지는 이를 구했네 / 백성의 요역에 포목을 줄여주니 영원히 잊지 못하리
Ⓑ 건립[후면] : 1832.4 엄장면, 귀일면
③비석 제목 : 〈사상심공영석애민선정비使相沈公英錫愛民善政碑〉
Ⓐ 비석 본문 : 없음
Ⓑ 건립[후면] : 글자 안 보임

③ 심동신(1824~1889)은 '제주도암행어사' 외에 이조참판과 대사헌을 역임하였다. 임오군란(1882) 당시 청나라로 잡혀간 대원군의 송환 문제를 김홍집·심순택과 협의하여 처리하였다. 공의 금관조복 8점이 단국대 민속박물관에 있다.



제주향교 내 〈어사심공동신 거사비御史沈公東臣去思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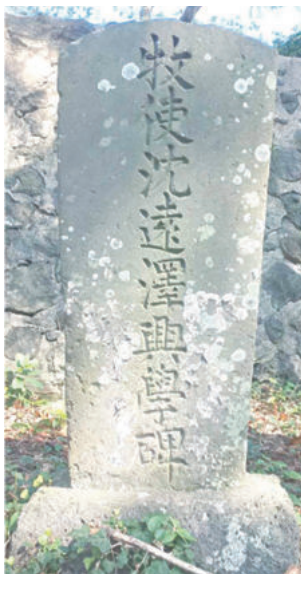
①비석 제목 : 〈어사심공동신거사비御史沈公東臣去思碑〉
②비석 본문 : 備錢四百 / 減柴衿戶 돈 400냥을 마련하여, 선비 집안의 시전(柴錢)을 줄여주었다네
③건립[후면] : 1862.2

④ 심현택(1845~1915)은 여주공(심우정) 후예로, 무관(武官)으로서 제주목사로 부임하여 국토의 최남단 마라도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인가하였다. 그리고 일본 어선이 연안(沿岸)에서 고기 잡는 것을 금지하는 등 도민의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위해 노력한 공로가 컸다.

제주 자연사 박물관내
〈사상심공현택혜민시혜비
使相沈公賢澤愛民施惠碑〉

①비석 제목 : 〈사상심공현택애민시혜비使相沈公賢澤愛民施惠碑〉
②비석 본문 : 承命開墾 軫念利厚 / 捐助等 ○ 忠我萬口(명을 받들어 개간을 하고, 백성의 복리후생을 걱정하였네 / 재물을 출연하여 (…) 만 백성을 위해 정성을다 했다네)
③건립[후면] : 1891.4

⑤ 심원택(1848~1890)은 인수부윤공의 후예로, 5대[18세 심위진~22세 심원택]가 연속으로 무과에 급제하고 고관을 지낸 명문 무반 가문 출신이다[무보(武譜) 地]. 공의 조부가 이름 높은 어영대장 심낙신이다. 제주목사 시절 학문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가 있었다.



제주향교 내〈목사심원택 흥학비牧使沈遠澤興學碑〉

①비석 제목 :
〈목사심원택흥학비牧使沈遠澤興學碑〉

3. 제주도 심문 선조의 선정비 7기는 사심 없이 능동적으로 복무하라는 것을 웅변한다. 제주도에 있는 심문 선조의 선정비는 백성들의 칭송이 자자했던 선조님들의 업적을 기리는 것이다. 이 글을 통해 근거 없이 선정비를 폄하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우수한 고교생, 대학(원)생들의 접수를 기다립니다

재단법인 청심장학회(이사장 심대평, 운영위원장 심오택)는 지난해 11월 11일 청심장학회 운영위원회, 같은달 23일 청심장학회 이사회를 각각 개최하고, 제5기 청심장학생 선발공고문(우측면 공고 참조)을 확정하였다.

금년 23년도 재단법인 청심장학회 장학생 선발 공고 내용에는 '선발인원 10명 내외 → 선발인원 ○○명'으로 하여 탄력적 운용이 가능케하였고, 재학증명서를 생략하는 등 지원서류를 간편화하였다.

지원서류 제출은 2023년 2월 13일부터 시작하여 2월 28일 마감된다.

(재) 청심장학회 이사회...왼쪽부터 심대평 이사장(대종회장), 심창섭 감사, 심진섭 이사, 임성호 이사, 심달훈 감사, 심오택 운영위원장, 심재안 이사, 심규정 이사 (사진 = 심상억 운영위원)

(재) 청심장학회 운영위원회...왼쪽부터 임성호 위원, 심오택 운영위원장, 심규정 위원, 심은석 위원, 심대평 이사장(대종회장), 심의보 위원 (사진 = 심상억 위원)

2023년도 재단법인 청심장학회 장학생 선발 공고

2023년도 재단법인 청심장학회 장학생 선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 원 자 격	품행이 올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재능이 출중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장래성이 유망한 자 -고등학교1년생 : 중. 고등학교 성적우수자 -대학(원)생 : 전체 학점 3.8/4.5점 이상 또는 관련 전공분야의 표창 등 실적우수자(입학성적 우수자 포함) -특기생 및 일반인 : 국내.외 수상실적 우수자 또는 유망주 ● 특기생은 학교(중,고교,대학.(원))나 학년, 분야에 제한 없음 -특별전형:소득분위가 낮은(소득3구간 이하) 구간의 탁월한 영재로서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중학생 우대)
선 발 인 원	인원 : 00명
선 발 대 상	중학생(특별전형).고등학교1년생, 대학(원)생. 특기생 및 일반인
선 발 방 법	장학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에서 선발
수 혜 금 액	3백만원~5백만원 ● 중학생 및 고등학교 1년생은 연속 총2회 장학금 지급
지 원 서 류	1. 장학금 신청서 2. 추천서 3. 최종학력생활기록부 또는 성적증명서(고1년생은 중학교도 제출) 4. 장래 목표 도전 계획서 5. 서약서 6. 가족관계 증명서 7.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8. 기타 증빙서류(수상실적, 전문능력증명서 등) ● 신청 양식은 청심장학회 홈페이지(www.cshim.org) 또는 청송심씨대종회 홈페이지(www.csshim.or.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제 출 처	(재) 청심장학회 사무국(02-2267-7857)
제 출 기 간	2023년 2월 13일~ 2월 28일까지
면 접 일 자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별도 통보)
장학금 수여	2023년 4월 중

2022. 11.

재단법인 청심장학회 이사장 심 대 평

● 금번 제5기 장학생 모집에 특히 외손들을 포함한 많은 영재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심문 모두가 관심을 갖고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심장학생 沈준석 덕수고 야구선수, 미국 피츠버그 입단 확정

〈심준석 프로필〉
생년월일 : 2004년 4월 9일생
출생지 : 경기도 수원
신 체 : 신장 195cm, 몸무게 110kg
포지션 : 투수 - 우투우타

대종회 (재) 청심장학회 제3기(2021년도), 제4기(2022년도) 장학생으로 선발된 심준석 덕수고 야구선수가 지난달 16일 국내 방송사 SBS와 인터뷰한 기사내용을 소개한다.

고교야구 최고 강속구 투수 심준석의 미국 피츠버그 입단이 확정됐는데요.

미국으로 떠나기 전 몸만들기에 한창인 심준석 선수를 배정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덕수고 1학년 때부터 시속 150km대 중반의 강속구를 던지며 국내외 야구계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심준석은, 3학년 때인 지난해 국내 프로야구 드래프트 신청을 포기하고 미국 무대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입단 제의를 한 여러 팀들 가운데 피츠버그를 선택했습니다.

(앞으로의) 제 성장 과정을 구체적으로 신경 쓰면서 잘 그려주셔서 되게 감동 받았던 것 같아요.

공식 발표가 난 뒤 쏟아지는 축하 전화를 받고 꿈이 현실이 됐음을 실감했습니다.

연락 끊긴 사람도 "준석이 되게 축하한다", "믿고 있었다" 그러고, 동주형이 전화 와가지고 갑자기 웃으면서 "축하해" 하고 그냥 끊던데요.

험난한 도전에 대비해 몸부터 철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력 운동 위주로, 트레이닝 위주로 운동을 해서 지금 이제 힘을 좀 붙인 상태이고 근육량도 많이 붙었고….

지난달 26일 피츠버그의 홈구장에서 입단식을 갖고 메이저리그를 향한 여정을 시작한 심준석은, 힘든 시간을 견딜 각오가 돼 있습니다.

(미국 무대가) 더 힘들텐데 부딪쳐 보면 또 얻는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메이저리그로 올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종회와 지파종회 활동

주목회 정례모임(11월28일)

왼쪽부터 재길 전 체신부 국장, 상정 전 국토부 국장, 대섭 전 감사원 국장, 춘보, 상훈, 갑섭 회장, 대식, 상대 전 KBS 순천방송 총국장, 우영 전 총무처장관, 재금 김포한강 신협본점 전 이사장, 우섭 총무, 상억 문화이사 (사진 = 창래 종보편집장)

청보산악회 송년회(12월4일)

왼쪽부터 심정섭, 심백섭, 심재근, 심갑택, 심광보, 심봉섭, 심종혁 청보산악회회장, 심창보 총무, 심구형, 심재구 인수부윤공종회장, 심홍섭, 심훈보

창립 20주년 청심회 회장 이취임식 및 송년회(12월6일)

심충식 회장 이임사 장면...신임 회장에는 심재섭 (주)우리 회장이 취임하였다.

청주종회 4분기 이사회 열어...심상호 회장 재선출(12월9일)

충북 청주종회는 종회사무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현안을 논의하고, 이어 차기 회장 선거를 실시하여 심상호 현 회장을 2년 임기의 차기 회장으로 재선출하였다.

청송심씨 58-70년생 개띠클럽 결성(12월12일)

왼쪽부터 가희(전주), 해숙(서울), 가영(전주), 무선(울산), 심무선의 남편 이원우, 갑섭(광주), 회장 원철(서울), 상억 문화이사, 총무 재중(완주), 상보(부산), 양섭(서울), 유섭(서울), 현섭(서울), 총무 성섭(파주)

신임편집장 심창래(전 YTN국장) 상견례 겸 종보편집방향 회의(12월14일)

왼쪽부터 심상억 문화이사, 심종래 위원(인천), 심재춘 위원(서울), 심재한 위원(광주 · 전남), 심행보 위원(경기), 심대평 대종회장, 심재성 위원(경기), 심재열 위원(전북), 심창래 편집장, 심재철 위원(서울)

한국페이퍼 심행보 회장을 인터뷰한 종보제158호 기념액자 전달(12월14일)

대종회 회장실에서 심대평 대종회장이 한국페이퍼 심행보 회장(우측)에 전달

청송심씨토론토종회 송년모임(회장 상욱, 12월15일)

이날 송년모임에서는 2023년 달력 및 종보 제158호(2022.11.30. 발행)를 배부하였다.

서울 청장년모임 '심지회' 창립모임(12월16일)

왼쪽부터 현섭, 상범 마술사, 해숙, 경택, 희준 심지회 회장, 왕섭, 상돈 스타키보청기 회장, 재윤 코리아타임스 논설위원, 진섭, 둘째줄 왼쪽부터 심훈, 재학, 재형 심지회 사무총장, 나경, 상화, 상억 문화이사, 양섭 청심회 사무총장, 재군, 기수

청송심씨 제주모임(12월17일)

왼쪽부터 심재천, 심상철, 심상철 지인, 심동호 지인과 심동호, 심대훈, 심국향 위원장이 모여 제주모임 결성에 관해 논의했다.

광청회 송년모임(12월 27일)

왼쪽부터 심영대, 심덕재, 심성식, 심돈식, 심필용, 심미숙, 심평식, 심광섭, 심동섭, 심상석 일가분

청광회 신년하례식(1월7일, 광주파레스관광호텔)

청광회(회장 심재규, 총무 심재윤)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청송심씨 기업인 · 공직자 모임이다.

경찰청 심한철 경무관 승진 축하연(1월10일)

앞줄 왼쪽부터 심희재, 심상억, 심원철, 심왕섭, 심재윤, 뒷줄 왼쪽부터 심규식, 심한철 경무관, 심희준 심지회 회장, 심해숙, 심재형 총무, 심훈

경무관총경 승진축하 경찰청 예방(1월13일)

왼쪽부터 심해숙, 심희재, 심재형, 심희준, 심한철 경무관, 심명섭 총경, 심상억 대외협력실장

2023년 고창군 방문의해 선포식(1월16일)

왼쪽부터 심영대, 심경섭, 심양섭, 심재웅, 심덕섭 고창군수, 심성섭, 심익섭 회장, 심상억 문화이사, 심익섭 교수, 심재섭 청심회 회장

청송심문 사람들 – 이런일 저런일

상(賞)받고, 승진하고, 영전한 일가분들

곡성경찰서장 감사장(10월21일)

심정섭
대한노인회 전남 곡성군지회장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장상(11월4일)

심용운
육군소령

보건복지부장관 표창(11월7일)

심정희
청심재가노인복지센터 시설장

'강원건축문화상' 대상(11월23일)

심재군
건축사 〈㈜더드림 종합건축사사무소〉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상(11월28일)

심혜인
영산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11월30일)

심훈
주)브라운에프앤씨 대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표창장 (12월4일)

심상학
주식회사 미래워크 대표이사

인천시요트협회 회장 취임(11월26일)

심상열
한밭 대표이사

서울강남복지재단 초대 이사장 취임(12월6일)

심계원
이사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1월1일)

심욱기
국 장

국립외교원 경무담당관실 (1월 16일)

심한철
경무관

경찰청 총경 승진 (1월10일)

심명섭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서울대 생물교육과 교수 임용(9월1일)

심수연
교수

외무고시 최연소 합격자(22.10.4)

심여진
합격자

청심회 신임회장 취임(1월1일)

심재섭
회장

2022년도 하반기 인사

〈국토교통부〉(12월25일)
◇ 과장급 전보 ▲ 모빌리티총괄과장 심지영
〈영원무역〉 (12월 29일)
◇ DB손해보험 승진 ▲ 정보보호본부 심성용 ▲디지털혁신본부 심진섭
〈한국무역협회〉(12월27일)
◇ 전보 ▲ 베이징지부장 심윤섭

2023년도 상반기 인사

〈국세청〉(1월1일)
◇ 과장급 전보 ▲ 전주세무서장 심상동
〈감사원〉(1월1일)
◇ 과장 전보 ▲ 감사교육원 교육운영부 교육운영2과장 심수경
〈서울특별시시〉(1월1일)
◇ 기술·연구 4급 전보 ▲ 안전총괄실 성동도로사업소장 심형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1월1일)
〈6급 전보 및 보직부여〉
▲회기동 공공복지팀장 심영남
〈부산광역시〉(1월1일)
◇ 3급 전보 ▲ 건설본부장 심성태
◇ 5급 전보 ▲ 건설행정과(수용보상) 심영옥
▲ 건설본부(팀장요원) 심용진
〈대구광역시〉(1월1일)
◇ 5급 팀장급 승진 ▲ 도시주택국 심강륜
◇ 사무관 파견 ▲ 행정국 인사혁신과(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심관택
〈광주광역시〉(1월5일)
◇5급 전보 ▲ 수질개선과 심경아
▲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심재웅
〈광주광역시 북구〉 (1월9일)
◇ 승진 · 전보 ▲건강증진과 심은정 ▲건축과 심정웅 ▲민생경제과 심유민 ▲문흥2동 심우문
〈광주광역시 서구〉(1월5일)
◇ 전보 ▲ 도시재생과 심남식
〈대전광역시 동구〉(1월1일)
◇ 5급 전보 ▲ 평생학습과장 심진섭
〈대전광역시 대덕구〉(1월1일)
◇ 행정6급 전보 ▲ 에너지산업과 심은우
〈울산광역시〉(1월1일)
◇3급 전출 ▲ 동구 부구청장 심민령
◇5급 전보 ▲ 건설도로과 심정은 ▲ 버스택시과 심재근
〈울산광역시〉(1월12일)
◇ 승진 ▲ 남구 심재서
◇ 전보 ▲ 기획조정실 심준현
〈울산광역시 동구〉(1월1일)
◇ 5급 전보 ▲ 관광과장 심미아
〈경기도 양주시〉(1월1일)
◇4급 전보 ▲복지문화국장 심영종
〈경기도 화성시〉(1월1일)
◇ 보건소장 ▲화성보건소장 심정식
〈경기도 김포시〉(1월2일)
◇5급 전보 ▲ 북부보건과장 심인섭
◇5급 승진의결 ▲ 장기동장 심재웅
〈강원도 강릉시〉(1월1일)
◇ 전보 ▲ 2023세계합창대회조직위원회 심상복
〈강원도 강릉시〉(11월6일)
◇ 5급 전보 ▲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 강릉아트센터장 심규만
〈충청북도〉(1월9일)
◇ 5급 파견 ▲ 행정안전부(기업이전TF) 심호창
〈충청북도 증평군〉(1월1일)
◇ 5급 전보 ▲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충청북도 단양군〉(1월9일)
◇ 5급 전보 ▷ 정책기획담당관 심상열
〈충청남도〉(1월1일)
◇ 4급 전보 ▲ 충남도의회 심완보
〈충청남도 태안군〉(1월2일)
◇ 4급 전보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
〈충청남도 천안시〉(1월1일)
◇ 4급 승진 ▲ 행정지원과 심해용 ◇ 5급 전보 ▲ 서북구 자치행정과장 심상욱
〈충청남도 아산시〉(1월1일)
◇ 전보 ▲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장 심현성 ▲도로시설과 심효섭 ▲ 산림보호팀장 심재우
〈충청남도 홍성군〉 (1월 1일)
◇ 전보 · 승진 ▲농업정책과 급식지원팀장 심홍석 ▲은하면 심은혜 ▲농업정책과 심재윤
〈전라남도〉(1월16일)
◇팀장급 전보 ▲ 농업기술원 심홍식
〈전라남도 순천시〉(1월1일)
◇5급 전보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8급 승진 ▲ 친환경농업과 심재현
〈경상북도〉(1월1일)
◇ 4급 승진 ▲ 세정담당관실 심은희
〈경상북도〉(1월6일)
◇ 승진 ▲ 회계과 심재훈 ▲북부건설사업소 심재민
〈경상북도 포항시〉 (1월4일)
◇ 전보 ▲ 일자리경제국 투자기업지원과 심순섭 ▲ 북구청 심산하 ▲ 남구청 심수진
〈경상북도 청송군〉(1월1일)
◇ 승진 · 전보 ▲ 파천면장 심부섭 ▲ 문화경제과 심순희 ▲ 청송군의회 심현성 ▲ 환경관리과 심석훈 ▲환경관리과 자원순환팀장 심승환 ▲ 농업기술센터 심정일
〈경상남도 고성군〉(1월1일)
◇4급 승진 ▲보건행정과 심윤경
〈경상남도 의령군〉 (1월9일)
◇ 전보 ▲ 궁류면 심영주
〈울산교육청〉(1월1일)
◇5급 승진 ▲ 화암고 심태형 ◇6급 승진 ▲장생포초 심수정
◇임용 ▲효정고 심소명
〈충남도교육청〉(1월1일)
◇ 6급이하 전보 ▲공주 심재만 ▲논산계룡 심재명 ▲천안신당고 심지운
〈전남도교육청〉(1월1일)
◇ 5급 과장 전보 ▲ 장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심예서 ▲ 광양공공도서관 심상미
〈농협금융〉(12월11일)
◇농협은행 ▲ 개인고객부장 심현섭
〈한국무역협회〉(1월1일)
◇전보 ▲ 베이징지부장 심윤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월1일)
◇ 2급승진 ▲ 심찬보
〈한국생산기술연구원〉(1월1일)
◇보직인사 ▲ 기업협력지원실장 심준섭
〈보험개발원〉(1월1일)
◇이사대우 승진 ▲ 자동차기술연구소장 심상우
〈한국인터넷진흥원〉(1월 5일)
◇단장급 보임 ▲ 침해대응단장 심재홍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월 3일)
◇팀장급 ▲ 지능데이터본부 데이터정책팀장 심호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월 6일)
◇ 승진(실장급) ▲ 충북북부지사 지사장 심미경
◇ 전보(실장급) ▲ 경영지원실 실장 심연섭 ▲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심우섭
〈한국가스안전공사〉 (1월 12일)
◇ 전보 ▲ 심재호 경기광역본부 검사1부장 ▲ 심규훈 전북본부 검사2부장
〈인천광역시〉(1월17일)
◇3급 승진 ▲ 정책기획관 심연삼

공지사항

1. 종보 구독자 1만 명 달성 협조요청

청송심씨종보는 국내외 30만 일가분들의 소식, 파종회 및 지역종회 행사, 제향봉행, 족보수단, 선조 사적지 소개, 장학사업 등의 기사로 격월 발행하는 청송 심문(沈門)의 소식 정보지입니다. 대종회는 연 찬조금 1만 원 이상 구독자 10,000명 이상 확보를 목표로 구독자 확대와 저명한 편집위원 위촉 등 모범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보 구독신청은 받으실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을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고, 아울러 종보 발전에 기여하실 일가분들의 많은 도움을 기다리겠습니다.

≪구독신청 : 전화 02) 2267-7857, 팩스 02) 2269-7755 또는 밴드, 페이스북≫

2. 임원회비 제도 변경

금년도부터 임원(회장단, 이사 등)의 회비 명목을 없애고, 대신 '종보 찬조금' 또는 '장학 찬조금' 명목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임원회비 ⇒ 종보찬조금 또는 장학찬조금 명목으로 납부

♧ **종보 찬조금 송금계좌 : 농협 301-0134-7557-61 청송심씨대종회**

♧ **장학기부금 계좌 : 농협 301-0256-8973-11 (재)청심장학회**

인터넷 족보 사진등재 안내

인터넷 족보에 본인, 배우자, 가족, 묘소, 재실, 비석, 훈장, 표창장 등 사진들을 등재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간 : 년간 수시
❍ 사진크기 : 증명사진(반명함) 이상, A4(210×297㎜) 이하
❍ 사진설명 : 본인(배우자) 사진의 이름, 기타 사진은 내용설명
❍ 등재매수 : 1인당 10매 이내
❍ 등재비용 : 1매당 1만원 【계좌번호 : 농협 301-2267-7857-81】
❍ 사진제출 방법
1) 우편 : 서울시 중구 을지로30길47. 찬경회관 5층 2) 메일 : set217@naver.com
❍ 사진 제출 시 작성할 내용
본인(배우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부(父)의 이름, 사진 설명,
인터넷족보 등재 상황(○권, ○○페이지)

경기도박물관 특별전 안내

왼쪽부터 심성식 이사, 심창보 총무이사, 심광보 이사, 심재구 인수부윤공종회장, 심종혁 부회장, 심구형 이사

인수부윤공파종회에서는 심재구 종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경기도박물관의 특별전(경기사대부의 삶과 격, 지석) 개막식 행사에 참석하였다.

전시는 2022년 12월 7일부터 2023년 3월 26일까지 경기도박물관에서 특별전으로 열린다. 이번에 전시되는 유물은 청송심씨인수부윤공파 가문, 청송심씨사평공파 가문, 풍양조씨 가문, 남양홍씨 가문 등에서 출토된 조선시대 사대부가의 지석과 명기 1,300여 점이다.

청송심씨인수부윤공파 가문의 지석과 명기는 2008년 14세조 만사공(영의정) 묘역 천장 시 출토된 것이다. 지석은 사대부가에 있어 어떤 삶이 보람찬 삶인지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으며, 부질없는 허위와 위대한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다.

각 찬조 2022.11.15.~2023.1.14 (50만원이상)

■ 각 50만 원 이상 찬조 시 2회 사진게재

심광부
천연기업 회장
장학찬조 500만원 2022년10월

심대실
용인 일가분
장학찬조 1,000만원 2022년10월

심진섭
정진푸드 회장
장학찬조 200만원 2022년10월

심상조
대유토건(주) 회장
장학찬조 500만원 2022년10월

심장식
(주)선광 회장
종보찬조 100만원 2022년10월

심윤섭
광주금당산종회 회장
종보찬조 50만원 2022년10월

심상욱
토론토종회 회장
종보찬조 50만원 2022년10월

심충식
(주)선광 부회장
장학찬조 200만원 2022년10월

심영희
청송사과 대표
장학찬조 200만원 2022년10월

심재덕
부산종회 회장
종보찬조 50만원 2022년10월

심광보
㈜바이오시스 회장
장학찬조 200만원 2022년11월

심재일
창원사복시정공종회 회장
종보찬조 100만원 2022년11월

심광석
광주부윤공파선산종회 회장
종보찬조 100만원 2022년11월

심충택
공숙공종중 회장
종보찬조 100만원 2022년11월

심재안
제일영재학원 이사장
장학찬조 500만원 2022년 11월

심익섭
오산사복시정공종회 회장
종보찬조 100만원 2022년 11월

심재선
공성운수(주) 회장
장학찬조 100만원 2022년11월

심상돈
스타키(주) 회장
종보찬조 100만원 2022년11월

심장식
함흥공파종중 회장
종보찬조 200만원 2022년12월

심재환
충주여산공파 세희·세철종중 회장
종보찬조 50만원 2022년12월

심행보
한국페이퍼 회장
종보찬조 50만원 2022년12월

심충식
청심회 회장
종보찬조 100만원 2022년12월

심행근
아산진사공파종중 회장
종보찬조 50만원 2022년12월

심상호
청주종회 회장
종보찬조 50만원 2022년12월

심대평
대종회 회장
장학찬조 300만원 2023년1월

심재문
부사공종회 회장
장학·종보찬조 400만원 2023년1월

심재월
재산관리위원회위원
장학찬조 50만원 2023년1월

심희준
심지회 회장
장학찬조 100만원 2023년1월

심종택
임천공파종회 회장
종보·장학찬조 200만원 2023년1월

〈158호 정정사항〉
2면 하단 ④ 심남섭 도사공종회장 → 심주섭 도사공종회장

종보찬조 2022.11.15 ~ 2023.1.14)

200만원	심장식(함흥공파종중 회장) 부사공종회(회장 심재문)
100만원	심상돈 (스타키(주)회장)
	청심회(회장 심충식) 임천공파종회(회장 심종택)
50만원	충주여산공파세철세희종중(회장 심재환) 심행보(한국페이퍼 회장)
	아산진사공파종중(회장 심행근) 청주종회(회장 심상호)
30만원	심영철(교수) 예천군종회 주목회(심우섭) 참판공파종중
20만원	현령공경남종회 심원필(모산학술재단) 청송종회
	심복만 임피종회(회장 심수영) 심언촌 (수원)
16만원	청주한의원
10만원	심재봉(인방산업 회장) 심준구 심효섭(수원) 심해철(대전)
	심재순 영신푸드심은정(국회사무처)
	심천보(심환지 종손) 심성보(대전) 심원보 심재일
	영신상회 심계원 심상택 심현석(대구) 심호섭(안성)
6만원	심강채(전남) 심 훈
5만원	심우경(곡성) 심영선 심명희(청송) 심순식 심우권(부여)
	심재정(합천) 심욱기 심상협 심엽기 심호섭(광주)
	심승섭 심상유(서울) 심대섭 심우엽 심상만
	심재석 심진복(인천)
4만원	심학선(박윤희)
3만원	심춘보 심광섭 심재두 심규증 심규식 심연희
	심재찬 심인자 심우진.방식
2만1천원	심재덕
2만원	심춘보 심상희 안은화 심항용 심춘환 심경구
	심봉섭(대구) 심상구 심현식 심금택 심인식(곡성)
	정화순 심광섭 심한섭(대전) 심효섭(장흥)
	심재중 심재삼(광주) 심재율(부산) 심남임 심은용
	심재인 심규양 심재민(양수) 심상준(광명)
	심기보(대전) 심성보 심재균 심생섭 심헌규 심영석
2,425,480	지로종보찬조

임원회비

감사회비	20만원	심충진(감사)
이사회비	5만원	심명섭(경남) 심대섭(익산) 심갑택(경기)
		심홍식(충남) 심재구(삼척) 심재호(안동)

장학찬조

장학찬조	300만원	심대평(대종회장)
	200만원	부사공종회(회장 심재문)
	100만원	심재선(공성운수(주)회장) 심희준(심지회 회장)
		임천공파종회(회장 심종택)
	50만원	심재월(재산관리위원)
	6만원	심재희(경기)
	2만원	심준호(청송)